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伊首相、來九月中에 飛機로伯林訪問

對伊制裁實施中의好意感謝

中歐블락結成企圖

【伯林廿八日發同盟】 伯林外交界에서는 뭇소리니 伊首相이 來九月 飛行機로 伯林을 訪問하야 히틀러總統과 會見할 豫定이라는말이 傳播되야 多大한 注意를 惹起하고잇다 右는 一九三五年 히틀러氏가 베네치아에 同首相을 訪問한데 對한 答禮를 兼하야 聯盟의 對伊制裁案實施中에 獨逸이 伊太利에 寄與한 好意에 謝意를 表할 意向이라고 하는데 消息通方面에서는 獨伊는 西班牙內亂을 契機로擡頭한 볼쇠비슴에抵抗키爲하야 獨伊를 中心으로하야 어에 墺地利、匈牙利、불가리 諸國을糾合하야 中歐블락의 結成을 企圖하고 잇는것으로 解釋하야 兩巨頭의 會見의 推移를 重視하고잇다

트로츠키氏外出 諸威政府禁止

革命的論說執筆繼續이原因

秘書二名은國外追放

【오슬로廿九日發同盟】 諾威法相리―氏는 二十八日 亡命中인 트로츠키氏夫妻에對하야 新任居許可를 엇기까지 헤네호스에잇는別莊에서 外出을 禁止한다는旨를 通告하는同時에 秘書二名을 歐洲諸國의 革命運動에 參加식힌嫌疑로 國外로 追放키로決定하엿다 諾威政府가 突然 右와如히 高壓手段을 取하게된것은 트로츠키氏가 外國政府를 誹謗하는 革命的論說의 執筆을繼續하는外 諾威政府와의 誓約을 無視하엿기때문이라한다

成都事件調査의 志波署長第一報

【上海二十八日發同盟】 成都에急行한 志波領事館警察署長으로부터온 第一報는 二十八日午後五時 當地大使館에 入電이 잇섯는데 右公電에依하면 二十四日午後七時 渡邊、深川、田中、瀨戶四氏가宿泊하고잇는 大川旅館에暴民數千名이 殺倒하야 暴行을加한바 田中、瀨戶兩氏는全身에 負傷하고目下 兩氏가모다 醫藥公署에 收容되여 手當을받고잇는데 經過는 良好하다 그리고 成都西方華陽縣政府埋屍院에 잇다는 屍體四個가잇다는것을듯고 志波署長一行은 同地에赴하야 檢屍한結果 其中二個가 渡邊、深川兩氏인것이 判明되엿는데 死體는 이미 甚히 腐爛되여잇다

東亞日報停刊理由

警務局長談으로發表

東亞日報는 今日 發行停止處分을 當하엿다 前日 伯林에서 開催된 世界올림픽大會의 마라손競技에 優勝의月桂冠을 獲得한 朝鮮出身의 孫基禎選手의 優勝은 日本全體의名譽로 日本內地와 朝鮮共히 慶賀할것이며 또 日本內地와 朝鮮融和의 資料로 할것이지 此를 逆用하야 조금이라도 民族的對立의 感情을 誘發하는것이 잇서서는 아니될것이다 그러데 新聞紙上의 記事는 자칫하면 對立的感情을 刺戟하고 融和를 沮害하는 態度를 取하는것이 잇슴은 一般으로 遺憾되는바이다 東亞日報는 從來 屢次 當局의 注意가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八月二十五日紙上에 孫選手의 寫眞을 揭載하엿는데 其寫眞의 日章旗를 抹消하야 日章旗가 新聞紙上에 나타남을 忌避한것이 判明되엿슴으로 마침내 發行停止處分을 하게된것이다 如此한 非國民的態度에 對하야는 將來에도 一般으로 嚴重取締를 加할 方針인데 一般도 深甚한 注意를 하기를 바란다

各地의記者團 强硬對策要望決議

【上海二十八日發同盟】 今次成都事件에依하야 直接脅威를바든在中各地日本新聞通信記者團은 자못 憤慨하야 各地에서 一齊히 蹶起하엿다 上海는 二十七日 北平、天津、漢口各記者團은 二十八日各其緊急總會를開催하고協議한結果 日本政府의 斷乎한 對策을 要望하는決議를 行하고 有田外相其他 關係 各方面에 決議를 打電하엿는데 上海에서는 二十八日 다시 全上海記者團의 聯合協議會를 開催하고 日本政府의 斷乎한 決意를 要望하는 決議를 行하야 有田外相其他 各方面에 打電하기로 되엿다

家族에弔慰傳達

國府外交部正式要望

【上海廿八日發同盟】 成都에서渡邊、深川兩氏가 殺害된事件이나타나자 國民政府外交部는 二十七日附로 日本側에對하야 「事件의發生을 遺憾으로여이고 殉難兩氏에게 哀悼의意를 表하고 兩氏家族에 弔慰傳達을 乞한다」는旨를 正式으로申請하고 犯人은 責任을가지고 處罰할 旨를 表明하엿다

朝鮮內各河川의 改修基礎調査

【東京電話同盟】 朝鮮地方은 每年 雨期에入하면 河川은 一般이 모다氾濫하야 例外가업서 이로因한 被害는 특히甚大하야 總督府內務局에서는 이에對한 根本對策으로 直轄河川及 地方中小河川의 徹底的改修工事를 行하기爲하야 計劃을 進行하여왓는데 只今까지 地方中小河川은 全部 放置되여 計劃의 基礎材料가 업슴으로 明年度부터 全鮮一齊히 地方中小河川의 改修基礎調査를 行하기로되엿다

極東軍備問題로 日蘇代表間激論

【요세미테二十七日發同盟】 二十七日 太平洋問題會議에서 日本代表와 蘇聯代表와의間에 極東軍備問題를 中心으로 突然한 論戰이 展開되여 緊張된 場面을 展開하엿다 日本代表는 極東에잇서 蘇聯의 强大한 軍備를 指摘하야 極東赤軍은 아마 日本全陸軍을 凌駕할것이다 라고 述한데對하야 蘇聯代表는 或은 그러할는지도알수업스나 詳細한數字는 不明함으로 調査한後에 報告하겟다고答하고 다시 極東軍備는 純全한 國防을爲함이지 他意는업다고 反駁하고 日本代表와의 間에 激論이 交換되엿다 日蘇兩國代表의 論戰後 英國代表는 太平洋의 平和를 確保함에는 軍事的 經濟的制裁를 伴하는 局地的安全保障條約의 締結이 必要하다고 主張하엿는데 다른英國代表가 歡히 支持를 表치안흔것은 注目된다

獨裁政府樹立코 (君主政治)復活人民投票

全左翼團體를解散、對獨伊親善維持

西叛軍政府의豫圖

【블고스二十八日發同盟】 叛亂政府는 叛亂完成後에 잇서서 經綸을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叛軍政府는 西班牙政權을 完全히 確保하는同時에 爲先暫定措置로 獨裁制를 樹立하고 議會의解散、全左翼團體의解散을 斷行한다음 西班牙의 君主政府復活의 可否를 人民投票에 問하기로하고 더욱 對外的으로 特히 伊獨兩國과 親善關係를 維持할터이다

重光大使에官紀傳達

【東京電話同盟】 新任駐蘇大使重光葵氏는 二十八日午後四時三十分 外務省을 訪問하고 有田外相과 會見 大使親任의 官紀傳達을 受한後 對蘇政策에對하야 여러가지로 協議를거듭하고 懇談後 六時三十分 辭去하엿다

駐西蘇大使更迭

【쥬네브二十七日發同盟】 聯盟事務總長아보놀氏는 二十七日 聯盟事務次長로젠베륵氏는 西班牙駐箚蘇聯大使에 任命되엿다고 聲明하엿다 【마드리드二十七日發同盟】 二十七日午後로젠베륵氏는 마드리드에 着任하엿다

李白兩氏除籍과 廣西討伐을發令

蔣介石氏、中央軍에正式發令

【廣東二十八日發同盟】 蔣介石氏는 二十八日午前十時 黃浦行營에 朱培德 程潛 陳成 余漢謀 何鍵 熊式輝等 中央 廣東兩軍의 首腦部를 召集하고 約一時間前線에서온 報告에基하야 對策을 協議한結果 一、中央에對한 廣西討伐令의發令 及 李、白、兩氏의黨籍除去를 要請하고 各方面의 中央軍에 對하야 其地를侵犯하는者는 土匪、廣西軍을不問하고 擊退하기로 決議하고 正午 各路中央軍에게正式應戰命令을發하엿다

大部隊이미衝突

【廣東廿八日發同盟】 廣西 廣東湖南三省境에 亘하야 前衛와全面的衝突이 惹起되고잇는데 北部戰線은 아직前哨線의 領域을脫出치못하고 大部隊의 衝突은 西江沿岸及 其以南의 南部戰線에 限定되여잇다 廣東側의 情報에依하면 二十七日夜襲來二十八日未明까지 激戰으로 化하야 午後에 이르러서도 좀그치지 안코 南路로 進入한 廣西軍은 一路 二路로 分하야 二路는 雷州半島를 占領하야 沿海沿線을 確保하고 大擧東進하야 羅定方面의 廣西軍과 呼應하야 茂明 陽江一帶의 中央廣東兩軍을 三面包圍의 陣形으로 壓迫하면서 西江下流南岸에 進出하려고 目下茂明에서 激戰中이다

朝鮮酒稅令改正

九月一日로實施

【東京電話同盟】 朝鮮總督府에서는 從來 朝鮮酒造業者가 濃度가 놉흔 藥酒의 酒稅가 割低한데 乘하야 藥酒에 混水하야 濁酒를 作成하거나 或은 甘味잇는 葡萄酒等 作成酒를 藥酒로 販賣하야 合法的으로 脫稅를 圖謀하는傾向이 잇슴에 鑑하야 이防止策으로 朝鮮酒稅令을 一部改正하야 制令으로 公布하야 九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엿다

烏蛇溝事件으로 蘇聯、逆襲的抗議

【莫斯科廿七日發同盟】 蘇聯外務人民委員部 極東部長 카즈롭스키―氏는 二十七日 日本大使館 酒匂參事官을 人民委員部에 招致하고 廿六日 蘇聯兵二十騎가 烏蛇溝의 蘇滿國境을 넘어 滿洲國領內에 侵入하야 日本監視哨와 衝突한 事件에 關하야 日滿側에게 逆襲的抗議를하야 事件의 嚴重調査와 犯人의 處罰을 要求하얏다 酒匂參事官은 今回事件以前 蘇聯領으로부터 小銃彈丸이 發生한 烏蛇溝에 가까운 東寧에 落下해온 事實에 關하야 蘇聯側은 注意를 喚起하얏스며 蘇聯側에서 嚴重調査한結果 蘇聯側에서 發砲한 事實이 업는것이 判明되엿다 그러므로 右小銃彈丸落下事件은 今回의 烏蛇溝事件을 正當化하려는 滿洲國側과 同地日本官憲의 捏造라고 할수밖에업다 따라서 蘇聯政府는 日本政府에 對하야 烏蛇溝事件의 嚴重調査와 犯人處罰을 要求한다

保護監察法 一般犯罪에도延長

【東京電話同盟】 特別議會를 通過한 思想保護觀察法은 드듸여 今秋十一月부터 施行되여 思想犯에 連座한者에 對하야 溫情의 保護의 손을뻬치도록 되여잇스나 司法省에서는 다시 一步를 나아가서 一般犯罪에 對한 保護觀察法을 制定하야 起訴及執行猶豫된者는 勿論 刑餘者全部에 對하야 保護善導의 손을 뻗칠 計劃을 세우고잇다

不再錄號外發行

本紙는 二十九日附로 各地水害狀況에關한 不再錄號外를 發行하엿습니다

人事·集會

◆明鮮華氏(前英陽郡守)退官人事次二十九日來社

八面錄

佛首相의履歷을가진세사로―民 世界戰爭이 再發될危機가왓다고 指摘。
◇『우루과이』라는 小國이 聯盟改造案을 事務局에 提出。
◇平和와幸福을 希求함은 人類의共通意思。
◇그러나 平和와幸福을 破壞함도 人類의共通運命。
◇羊毛輸出의 門이 막힌 濠洲에서 日本과 通商交涉再開를 提議。
◇『랑카사아』紡績業者가 濠洲에 工場을 내기前에는 羊毛가 엇지될지몰라 딱한노릇。
◇文化發達은 生産을 增進시키는 同時에 生産을 妨害하는 곳에 運命的 苦悶을 包藏。

白頭山探險記

天王堂暫間들러 一路無事를祈願

⑧ 徐椿

三長面은 總面積二千三百二十七方里中에 크기로 第一位를 點하는 面일것이다。白頭山全面積의 九割以上이 茂山三長面에 屬하며, 農事洞으로부터 白頭頂上까지는 全部 茂山郡三長面에 屬한다。겨우 回路의 一部分인 三池淵附近四十里가 甲山郡普惠面에 屬할뿐이다。그리고 보면 우리가 白頭山에 갓다는것은 結局 三長面을 도라단니다가 왓다는 말이 된다。

이러케 廣大한 面의 面所在地가 即, 이 三長이며, 이 三長은 西頭水를 안고 안즌 깨끗한 小邑里다。

우리 一行은 三長서 點心을 마치고 九日午後二時頃에 각각 給仕한 소달구지를 달니고 胸宇를 들려서 떠낫다。

南岸果敎에는 別로 變함이 업시 아모리 보아도 숨지 안흐리만치 되여 잇다。

豆滿江은 元來가 좁은 河川이다。兩國의 國境이 될만한 資格이 업다고 보리만치 적은 河川이다。게다가 우리가 가는길은 漸漸 上流를 向하야 遡上하는데라, 河幅이 갈사록 좁아진다。甚하면 異國에 건너뛸뜻 실흔데도 잇다。豆滿江의 國境으로서의 資格의 有無는 여기와서 漸漸 疑心을 품게되는바, 이 疑心은 白頭頂上을 向하야 올나 갈사록 더 커지는것이다。

◀豆滿江國境生活

벌벗고 드러서면 것지안코 건너가고
뛰여도 제인이는 그냥도 될뜻하다。
한편의 길이노아 다리를 만들고서
江건넛 동모를데려 술먹길 놀고잇다。
外樣에 다르나면 옷도말도 다갓흐며
滿洲니 朝鮮이니 무엇으로 가릴것가。

沿岸一帶에 點點히 散在한 農家에는 大槪 물방아가 잇다。물방아는 比較的 일즉부터 發明된 一種의 搗精機로서 朝鮮十三道를 치고 업는데가 업슬것이나、豆滿江沿岸一帶에 잇는 물방아는 그것이 大型이오、따라서 그動作이 悠長해 보이는데 特色이 잇다고 할것이다。

◀山村물방아

山間에 흐르는물 곱게바더 머리돌고
들면서 쏘다노코 다시숙는 물방아야
바뜨물고 쏘다숙임 그동안이 한종이면
저山을 다가지곤 千종이나 萬종이랴
물방아 모양보고 서럽아 웃지마러
動作이 뭘지언정 방엔들 쉬일소냐

茂山서 三長이 百里요、三長서 約七十里를 가서 農事洞 채 밋지 못한곳에 天王堂 드러가는 길이 잇다。入口에 自動車를 머추어 노코 一行은 天王堂에 올나 갓다。入口에서 天王堂가는 길은 傾斜가 甚히 急하야 올나 가기가 힘이 드나, 所要時間은 約十五分밧게 더 안걸니는데다。當到하야 본즉 規模가 宏壯히 크다。建物 두채가 잇는데、한채는 紅湍閣이라는 樓閣이오、또한채는 白頭山天王님을 모신데다。여기 저게 걸린 懸板과 柱聯을 보면

天王堂
尊敬堂
萬古名山
一國祖宗
白頭靈峯
紅湍靈祠

等等의 文句가 잇고, 정작 神位를 모신데는 香案이 잇고、香案 우에 香爐가 압헤 노이고、香爐뒤에 位牌를 모시엇는데 그位牌에는 大天王靈神之位라고 씨워 잇슴을 볼수잇다。堂前에 큰 뜰이 잇고 그뜰에는 百花가 爛漫한데、오고 가는 登山客들은 제각기 자랑하는듯하다。

우리 一行은 白頭山靈峯님한테 敬意를 表하는 同時에 一路無事를 神靈님한테 비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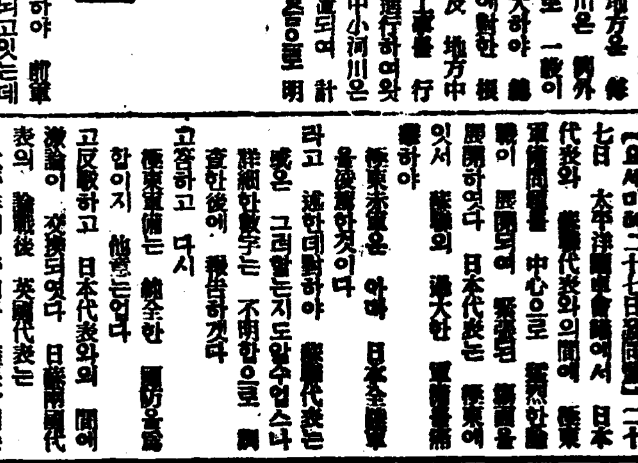
◀天王堂 白頭山 품에안어

고히고히 지혀주신 神靈님 山神靈님
계신데가 여기로다。
한머리 맺은정성 한뿌리 풀포기도
당신이 마르시어 록보는줄 아옵니다。
머리검은 저이들도 당신품에 안기오니
이山을 떠는동안 保護하심 바랍니다。

天王堂으로부터 나려와서 다시 自動車를 타고 出發하야 約十里의 길을 더가서 到着한 곳은 即 農事洞이다。到着時間은 九日午後四時다。

農事洞은 文明의 利器 交通機關을 利用하야 올수 잇는 最終點이다。明日부터는 徒步登山이 始作되는 날이다。故로 정말 登山은 農事洞으로부터 開始되는것이다。이 곳에서 一泊하면서 우리는 最後의 登山準備를 完成하는 同時에 警備員 諸氏와도 이 地點에서 맛나기로 되여 잇다。(寫眞은 紅湍山의 天王堂、堂前人物은 右李相昊君 左金世鎔君―筆者)

肉體及精神的虛弱에對한再建設的强壯制
네오톤 토닉
NEOTONE TONIC
ネオトン トニク는肺臟을爲始하야人體五臟六腑의 虛弱을退治하고 細胞의 新生賦活을 營爲하는 再建設的靈藥이다
ネオトン トニク의一部는直接으로 一部는神經興奮을 經하야細胞의新陳代謝에關與하고 血球形成과體重을增加하야肺結核其他呼吸器病에對한治療的効果가有하며 또한 消化機能을促進하야 食慾을增進하고神經及感覺에作用하야 人體エネルギー를亢進함으로 スポーツ練習等에도 優秀한 强壯劑이다
本劑에對하야그作用効能等은貴下자 信任하서는醫師에게問議하서라!
包裝{一폰드入 (一個月分) 半갈론入 (四個月分) 一갈론入 (八個月分)
(文獻及說明書請求即時進呈)
네오톤 토닉 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大連市駿河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最完全한トミタ發動機
トミタ發動機

農林省比較審査最高優位入選機
兄弟ホ―オ―一級搗精機
トミタ發動機・板野式脫穀機
グロリ發動機・マルヤボンプ
マスタ發動機・中央式精米機
ホ―オ―一級搗精機製搗機
ホ―オ―一級製粉機其他各種機械
特約店募集・型錄進呈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
中央商工社
電話本局 (五)三七四 一五二六番

朝報案內
女案內人募集 年齡十七歲로부터二十歲까지 國語能通한者希望者는履歷書持參하고本人이面談할事
若草映畫劇場事務所

恩給
長期擔保融通 他에比較업는最有利 信用은弊店의特色 乞照會回答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예수교 선교사업

혹은 선교사업을 정치적으로 국가정치의 수단으로 넘의 결론을 정의하는 한가지라고 보는일이잇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야만한 따에서 혹시 선교사를 해하는 일이 잇을때에 그 선교사의 본국 정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야 정부로서 취하는수단이 잇는것이다 여기는 각 나라가 달너서 혹은 과도히 하는자도잇고 적당히 하는자도 잇을것이다 하여간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은 정부와 관계없는것이니 오직 「예수」의 사명에 의하야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로 평화케하고 하나님의 뜻이 한울에서 이룬것같이 따에서도 이루게하야 만민이 다 함께 복을밧게 하려 함이다

이제 선교의 사명으로 말하면 「예수」ㅣ말을 하시기를 「한울과 따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주셧스니 그럼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무엇이든지 내가 너희게 분부한것을 다 교훈하야 지키게하라 도 나는 세상 끗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잇으리라」한것이다 그리하야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근거지를 삼아 떠나에 선교하엿고 이방인은 「수리아」「안듸옥」성으로 근거지를 삼아 다시 「로마」제국으로 전하야 「로마」제국에서구아 각국에 선교하고 구미에서 동방으로 「중국」「사룡성」으로 선교사를 파미되고 「조선」교회가 비록 약하나마 「조선」에까지 선교하게 되엿다 이것이다 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영과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야 죽엇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될수잇는 일이라

오케―一傑作盤

金海松
朴英鎬作詩
金松奎作曲
—1919—
減의눈길
노래 金海松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 三二
午前二時부터九時까지
一、靑春座公演第九回 八月二十七日낮부터
林仙圭作
一、悲劇 사랑에속고돈에울고 三幕
二、新興喜劇
三、喜劇 以熱治熱 一幕五場
洛山人作

國成社
八月廿九日封切(六日間)
生涼九月第一週特別興行
每日三回(午前十一時 午後一時半 六時半)
◆英國BIP超特作映畫
音樂指揮 名匠세실塔이스監督
갈멘
마그리타·나피라主演
世界的歌劇
◆JO、超特作映畫
原作脚色―西條八十
監督―永富映次郎
勝太郎の子守唄
◆日本빅타名歌手로全日本을風靡中인勝太郎의자장가
◆生目의 세이이스라社特作映畫
妖鬼잉야
最近에보기드물다 이러케悽慘하고몸서리나는映畫는 今日本SY系

第二次三南暴風雨慘禍去益悽絶!

金泉一郡域內서만 死者가百五十名
人命被害尤甚한慶北道內
死傷總計四百餘名

【大邱支局特電】이십칠일밤부터 경북김천군지례(金泉郡知禮)를중심으로 상주(尙州)문경(聞慶)예천(醴泉)각군도내각처를 엄습한 폭풍우의 피해는 상상이상으로 심하야 예천군하리면(下里面)에서는 산이문허저서 사상자가만흔모양이며 이십구일 아츰아홉시현재로 김천군내에는 죽은사람이 륙십오명이나 되는것이판명되엿는데 지금도 사상자가만흘것이다 그리고경남도경찰부의 조사를보면이십구일오전아홉시현재 도내에서 죽은사람이 일백이십명 행방불명자가 삼십삼명 부상자가 이백사십팔명이라고한다

別報

【金泉支局電話】경북김천(金泉)일대에는 이십칠일밤 큰례에드문 폭풍우가 엄습하야 시내전부는 삼시간에 전부침수되야 대혼란을일으키엇다 그리하야 지금까지판명된 김천군하의 피해는죽은사람이 일백오십명 가옥류실이 삼백칠십호 가옥전궤가일천어십호인데 조사에짜라 피해액은수십만원에달할것으로본한다

大洛面、駕洛面 再次危機에直面
三千避難民仰天呼哭

【金海支局特電】락동강은 각각으로 물이불며 금해군생림면민(生林面民)전체의 생명선인생림면방수조합제방이 터저 부근주민이천여명은 지금산우에로 피난중이며 이북면(二北面)에도류실전괴등 가옥이 백여호에달하며 비는지금도 계속하야 락동강은 계속하야 증수중이다 대저면(大渚面)가락면(駕洛面)도위긔에다달아 주민들은 피란중이며 삼천여명의피란민은 하날만우러러보며 비탄의눈물에저저잇스며 구호의손을 고대하고잇는중이다 평야(九龍)는 바다로화해버렷스며 우편교통은 일체두절되어버렷고 지금도 곳곳으로 물이불고잇는중이다

高興邑內百戶浸水
三名이重傷

【高興支局特電】전남고흥(高興)지방에는 이십칠일오후세시부터 약여섯시간동안 폭풍우가 계속하야 고흥시만 약백호가량이파괴되고 사람세명이 중상을당하엿다 피해상황은 방금조사중이므로 상세치안흐나 판내전부의피해액은 상당할모양이다

新泰仁地方에도 三部落이浸沒

【新泰仁】전북신태인지방의 이십칠일밤 태풍과폭우에의한 참담한 피해의 현상은 작보와갓거니와 점차 밝혀지는 피해의 참상은 신태인의전구상리(九上里)신제촌(新堤村)화전촌(花田村)중 구상리 일부만제한외에는 전부 침수되어 신제촌이신청동중 다섯호는 완전히 도괴되고 그이외의 집은 강수되는대로 도괴되리라하며 전긔상부락의 리재민이백여명은 이십칠일밤 여섯시에 겨우수방단(警防水防團)이 구상리 상비구대(九上里常備救護隊)으로 전북구출하야 상륙식혓는데 리재민들은 각기 친우와 친족을 차저로 피난케하엿다 신태인상산(三山)대정(大井)등지 전북에서는 리재민구제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이서지안흔모양으로 리재민들은 각지로 산재하야 유리걸식하다하며 일면간척한으로 지은 농사가 금번까지 류희되야 종자조차 차질수업게되므로 박성율락하는 부인도잇다는데 삼동리삼백 사람이 [illegible] 상태이서이가량이다

扶餘郡內水害

【扶餘支局特電】이십이일부터내리기시작하는비는 이십칠일까지 계속하야 각하천은 이십척이나 증수하엿스며 침수된전답은 오천여정보에달하고 전괴된가옥이 십구호 반괴이십사호이고 구룡

京江一帶漸減水
纛島罹災民續續歸還

독섬일대를 두번째 물나라로만드러버린 한강수위는 이십팔일 밤열한시에 이르러 실『메-타』이십사를가르키고 그때까지에붓는속력을보아 저번의 최고수위『메-타』륙십을 돌파하는것도 다만 시간문제로보여 주민들은 전전긍긍하며 수마에게 여지업시 유린당한 자긔의집을 도려다보며 왕십리기타로 속속 피란하엿스나 물도 마음이 잇든지 전과수위를 최고로 이십구일오전두시까지는 붓지도안코 줄지도안타가 그뒤부터는 이여시가속도적으로 줄기시작하야오후한시현재 칠『메-타』누십으로 부적줄어젓다 공포에차엿든 주민들의 얼골에는 안도의태가 떠거서작 정오부터는 왕십리보통학교에 피란하엿든 칠백여명을 비롯하야 시내에잇든 자긔친척을의지하야 피란하엿든 주민들도 물속에잠겻든집을 차저다시도라가기 시작하야 일대혼잡을이루고 잇스며 전긔왕십리보통학교에서는이 혼잡으로말미암아 이십구일부터 임시휴교(臨時休校)까지 하엿다

清凉里線復舊

물속에잇든 청량리선 전차는 이십구일오후세시부터 전통되엿스며 동대문독섬사이의 경성궤도선은 아직물속으로 빼니 도 삼십일오후가아니면 개통될

漢江橋水位 八米四五
昨夜來水魔一齊退散

이십팔일밤까지도 시시각각으로 불어가서지난번장마때 수위에게 진을라갈뻔하다가 다행히 비가 멈추엇다에 차츰차츰 주러드러가는 한강(漢江)물은 이십구일 오후두시에 이르러 한강여덟미돌노자십으에 욱천(旭川)아현미돌(뚝)십으로 뭇정주러젓다 이러하야 지긋지긋한 물불리로 오래동안 찌프려젓든 일반부민의 눈살은 다시 쾌활히펴게되엿는데 이제부터는 경강(京江)일대를 위협하고잇든 물귀신도멀즈거니 물러가고만모양이다

東部管內水害狀況

독섬수위십『메-타』이십사를가자망이엿다고한다 드귀이번홍수의 최고피해상황은 이십구일오전두시현재 동부서 소관내 수해상황은 다음과갓다(床上、床下浸水合算)

▲杏堂町七〇戶 ▲馬場町三四戶 ▲鷹峰町三〇戶 ▲沙斤町一五戶 ▲典農町七戶 ▲纛島町八一戶 ▲玉水町五〇戶 ▲金湖町二〇戶 ▲清凉里町一八戶 ▲往十里町六戶

南總督水害地視察

이십구일오전열한시 남(南)총독은 염원(鹽原)비서관을 대동하고 전중(田中)경무국장 제지(鵜池)해군 등촌(藤村)촌군 어용괘(御用掛)를 따라 안정(安井)경기도지사의 인도로 한강까지나와 인도교를중심으로 부근일대에걸처수해상황을 실지시찰하엿다

全市에食糧缺乏 給水도不能狀態
行方不明者三十五名
晋州郡廳員의災地目擊談

【釜山支局至急電報】겨우 전멸에 가까운 진주(晋州)의 수해는 이십구일아침 경남도청으로 수해보고를 하러온 진주군청원의 이야기를 드르면 이십팔일 오전세시경에 남강(南江)은 드듸여 범람하야 채봉정(彩鳳町)제방과 앵정(櫻町)제방등은 모조리 터저서 진주읍총호수 륙천륙백호중에 오천오백호가 침수되고 행방불명 된자가 설은다섯명이요 수원지는 급수불능 상태이며 식량이 결핍하야 대곤궁중에 빠저잇다

大邱以南不通으로 東海兩線迂回連絡
京釜線旅客輸送對策

철도국에서는 경부선 수해구역에대하여 총동원을 헤가지고 복구공사에 전력을다 하고 잇는데 어느곳이나 강물이나피해가 막대한데다 폭풍과 호우가어올려 갈스록 [illegible] 통신기관이 아조끈허지고만 데문에 수해현장과 련락이 잘되지 안허서 복구공사가 여섯스나 이십팔일밤에야 이르러 통신기관이 겨우회복되야 함께 대전-금천-대구(大田-金泉-大邱)사이의 개통을 보게되엿다。 그리하여 직통열차의 계획만은 세울수 잇게되엿스나 대구-부산사이는아직은 복구될 가망이 보이지안코 대구-서울사이만 전통이되여서 국제련락들은 대구서동해남부(東海南部)와 동해중부(東海中部)두선을 거처서 련락시키기로되엿는데 그때이아그랄른 대체로 다음과가티 결정되엿다

北行
(東海南中部線經由)
▲釜山着午前六時三十分(七便)連絡船의旅客은 釜山發午前九時十四分의列車로 東海南、中部經由同夜大邱發新京行第一列車『히까리』(京城着翌午前五時五分)及奉天行第三列車에(京城着翌午前七時四十五分)接續
▲釜山着午後六時(第一便)連絡船의旅客은 釜山發午後九時二十五分臨時旅客列車로東海南中部線經由翌日大邱發奉天行第七列車『노조미』(京城着午後三時二十分)及奉天行第五列車(京城着午後七時二十五分)에 接續

南行
▲京城發午前十時五十五分釜山行第六列車의旅客은大邱下車東海中、南部線經由翌日午前七時三十分釜山着釜山發(第二便)午前十一時三十分의 連絡船에接續
▲京城發午後三時釜山行第八列車『노조미』旅客은大邱下車 東海中、南部線經由翌日釜山着午前七時三分 釜山發(第二便) 午前十一時三十分 連絡船에接續
▲京城發 午後十時五分 釜山行第四列車의 旅客은 大邱下車 東海中、南部線經由 當日釜山着 午後七時二十二分 釜山發(第八便)午後十一時三十分連絡船에接續
▲京城發午後三時五分『히까리』釜山行 旅客은 大邱下車 東海 中、南部線經由 當日釜山着 午後七時二十二分 釜山發(第八便)午後十一時三十分連絡船에接續

水王産婦人科 李麟杰

大邱以南電線 尙今不通

폭풍우로 전선에 고장이생겨 통신인 경성과 대구(大邱)이남각처와 미일본내지와의 전화는아즉도 복구되지못하엿는데 의피해가 상당한모양으로 아즉은 언제복구될지 알수업다고한다

水害地를迂回 郵便物을遞送

폭풍우때문에 남부조선의 교통이 끈허지여 철도는물론 항공기도날세가 안되여 비행하지못하야 조선과 일본내지와의 우편물체송경로에 혼란이되야 우편물체송경로는 근래에 드문 대혼란상태를 일으키고잇서 일본내지로부터 부산에도착된것과 일본내지로가는 우편물로 대전(大田)대구(大邱)등지에정체된것이 이십구일까지에 각각이천행랑(行囊)에 달함으로 체신국에서는 현장에 계원을 보내여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응급체송경로를 열고저 철도국과 조선우선등과 절충한결과

一、대구에 싸혀잇는일본내지행우편물은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을경유케함

一、일본내지로부터 부산에와서 싸혀잇는우편물은 동해중부선을경유식히든지 또는수륙편으로대구까지련락함

一、일본내지로부터 부산에와서 싸힌 우편물의 대부분은 장긔(長崎)조선、대련(大連)선의 명력항로 조선우선긔항편에탁송하야 그배는 이십구일 정오 부산을떠나 삼십일오후한시에 목포(木浦)에도착될터로 호남선을거처 경성방면으로체송되기로 되엿다 이리하야이십칠일아츰 하관(下關)에서발송되든우편물은 삼십일밤에야 겨우경성에 도착하게되엿다

工夫五百名 水害現場에急行

철도국에서는 지난이십칠일 오후한시 수해현장으로 달려가청수(淸水)공부과장의 요청에의하여 이십구일아침철도부시이십분텁시렬차로 입부삼백명과 도대전철도사무소관부터도 입부이백명을 수해현장으로 각각 보냇다

麗水港被害

이십구일 오전아홉시삼십오분 철도국(鐵道局)착정보에 의하면 려수항(麗水港)의 피해는 철도국 승무원숙박소(鐵道局乘務員宿泊所)가 문어지고 석탄(石炭) 삼백돈이 유실되고 석유(石油) 삼백궤가 류실되엿다

槪況 颱風은 日本海北部로 黃海北部와 東中國海에잇스며 高氣壓은 北滿과 小笠原島附近海上에 떠저잇다 滿洲는 날세가조코 朝鮮은 흐리며 一部海峽에는 小雨가잇다

豫報 京城地方 오늘밤은 흐리며 小雨가 내릴지도 알수업다 明日은 흐렷다 개엿다할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五度六
同最低 一六度八
今朝最低 一八度八
今日正午 二三度七

廿九日午前六時現在
▲釜山五미리 ▲木浦一〇 ▲大邱一五 ▲全州四 ▲京城五 ▲平壤九 ▲元山四〇 ▲新義州一 ▲城津二〇

籠球規則異狀
『센머·점프』는單二回
選手身長을制限
國際籠球規則委員會

【伯林에서朝鮮籠球會】伯林올림픽大會를機會로 八月十三日午後二時부터,호텔·아도롱에서 國際籠球規則委員會를 開催한바 여러가지 不統一한規則과 籠球界의發을 善導하기爲하야 規則改正紹介하면 다음과갓다

▲第一 十秒制를그대로採用할것이잇섯는데 그重要한것만을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이번 올림픽大會에서는『센터·플레라인』이잇섯고 舊制를그대로하엿기때문이다)

▲第二 『센터-점프』는 처음始作할때와 後半戰開始當時에限하야中央서클에서開始의『센터-』가 점프할뿐이요 그以外에는 점프를 아니하고 골을넷은팀의 손으로부터 그『엔드라인』에서 始作되다

▲第三 出場選手身長制限問題에잇서 一米九〇(六尺三寸)까지하도록 決定되다

▲第四 相對팀미테서 『티엽끗』을 못하는것

以上의 重要한 改正規則이며 第一로것이 身長制限과센터-점프등全計입을進하야年번바게실失서렴에서 行하지안는것이다 이身長制限問題는 李相白氏가 提議한것인데 國際規則委員會에서 好評을 바덧다。그러나 우리 朝鮮籠球界에잇서서는 身長問題關係는 업을것이다。

開城對海州 陸上對抗
九月六日海州서

【海州】海州體育會와 開城高體育會共同主催의 第二回全開城全海州陸上競技對抗戰은 海州新聞記者團後援미테 오는九月六日午前十時부터 海州高普『그라운드』에서 擧行키로 決定되여 開催當面인 海州體育會에서는 方今그準備에熱中하고잇는데 競技種目은 다음과갓다

▲트랙部
一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千五百米 五千米 障碍走 八百米競走

▲필드部
走幅跳 走高跳 三段跳 棒高跳 投砲丸 投圓盤 投槍 計 十五種目

一、二次暴風水害 人命被害千六百
廿九日午後三時現在各道報告

이십사일부터 다시 중남부조선일대를 습래한 폭풍우의 피해상황은 아직 통신기관의 두절로 말미암아 상세한보고는업스나 이미 판명된 피해로 경무국에 모혀드른피해상황의 집계를 보면다음과갓다 즉 이번폭풍우의 피해중 인명의 사상은 사망자 [illegible] 부상자 [illegible] 행방불명 [illegible] 인명의사상만 이미 판명된것이 사백칠십륙명에 달하엿스며 또 가옥피해를 보면 전괴가사천구십구호 반괴가 일천구십이호 류실이 사백사십삼호로 침수가 이만이천일백구십오호로 가옥의 피해가 이만칠천팔백이십팔호이다 다시전번의 제일차수해의 피해와합산하면 사망자가 륙백륙십구명 부상자가 륙백구십륙명 행방불명이 일백팔명으로 인명의사상만 일천사백칠십삼명에 달하엿스며 가옥의피해는 전괴가 [illegible] 반괴가 [illegible] 류실이 이천팔백팔호 침수가 [illegible] 이천팔백륙십사호로 류게가옥의피해는 칠만오천팔백륙호의 다수에달하엿다

	死者	負傷	行方不明	家屋全壞	半壞	流失	浸水
京畿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咸南	[illegible]	—	—	[illegible]	—	—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第一次水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夜 水害救濟舊樂大會
於本社大講堂●午後七時半【入場料五十錢均一】
第二日

蓬萊町에殺人强盜
現金四十圓强奪逃走
所管西署에서는附近牛肉商等을取調中

이십구일 오전한시부터 다섯시사히(推定時間)에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 삼십삼번지 일용잡화상(日用雜貨商) 봉래상점(蓬萊商店)(一名-만리재商店)에식 안에서 자고잇든 주인 채순서(蔡淳瑞)의형 인서(仁瑞)(五○)의 목과 가슴등을 란자하야 현장에서 즉사케한후 금고속에잇든 현금사십원을 훔처가지고 도주하엿다 범행현장에는 우육상(牛肉商)이 사용하는칼이 떠러저잇스며 그밧게범인이어대로부터침입하엿는지 아직알수업스며 유일한 증거품인 식도는 봉래상점의바로엽집인최우현(崔禹鉉)우육상에서 사용하든것이 판명되여방금 서대문서에서는 기타용의자 이상명과 아울러 취조중이다 현장에는 사법계 고등계형사 문서장이하 사법계 고등계형사대가 총동원되여잇스며 도경찰부의하가(下家)주임이 인솔하는 형사대와 협력하야 세밀한검색을하고잇스며 경성지방법원 흑뢰(黑瀨)검사가 서긔를 대동하고 출동하야 검시를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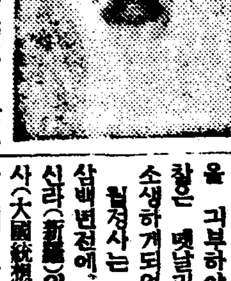
獨寢中에被殺

별항 봉래상점은 봉래정사정목에잇는 봉래탕(蓬萊湯)의경영주 리석경(李石璟)이라는 이의소유로 리석경이가 전긔 채순서에게 위탁하야 장사를식히든것으로 금이십구일 오전다섯시쯤에 채순서가 전긔상점에와서형을깨우랴고하엿더니 아모인긔척이업슴으로방안에 드러서니 그때는 임이피투성이가되여 즉사하여잇섯다한다 이상점은안방이업고 가개한모퉁이에 약반간가량되는 온돌이잇는데 이곳에서 흉행이이러낫슴으로 흉행당시에는 근처에서도알기어렵게되엿다(강도침입한집)

論興社歲饌契에鐵槌

시내종로서사법계에서는 며칠전부터 시내안국정(安國町)에잇는 론흥사(論興社)라는 세찬게(歲饌契)의 장부를모조리압수하여와서 배임사긔(背任詐欺)혐의로 엄중내사중인데 이게는오변전에 안국정부근의 부호와귀족외소실등 삼백명의 여자회원이 되자 사천여원의 적립금으로 설립한것인데 그동안 이게돈사천원을빌려쓴사람들이 대부분 거처불명흥은파산을하야 계가 깨트러지게 내사의금호전개거 주계주목된다

五臺山月精寺에 金潞禹氏五萬圓寄附
一千三百年의名刹이로써更生



강원도 평창(江原道平昌)군오대산(五臺山)에 잇는 월정사(月精寺)에 시내의선(金谷町)에잇는 김용우(金潞禹)씨가 사만원을기의제써가 일만여원구백오십여원을 귀부하야 비운에빠저잇든 명찰은 옛날과가티 대본산으로서 소생하게되엿다 월정사는 지금으로부터 일천삼백년전에 신라(新羅)의 왕조대국통자장사(大國統慈藏師)가 창립한명찰인데 그간 이절은 남의빗을 만히걸머지고잇서 절의 소유재산을 다빼앗기어 대본산으로서 유지할수업게되야 아주 때리하여잇섯다 그런데이번에사십만원의거재를 던저 월정사에조선학회(育英會)를 설립한 김용우씨의 독지가수씨의 장거로전긔와가티 만대한국금속어터 복구하게되엿다한다 (사진은 김용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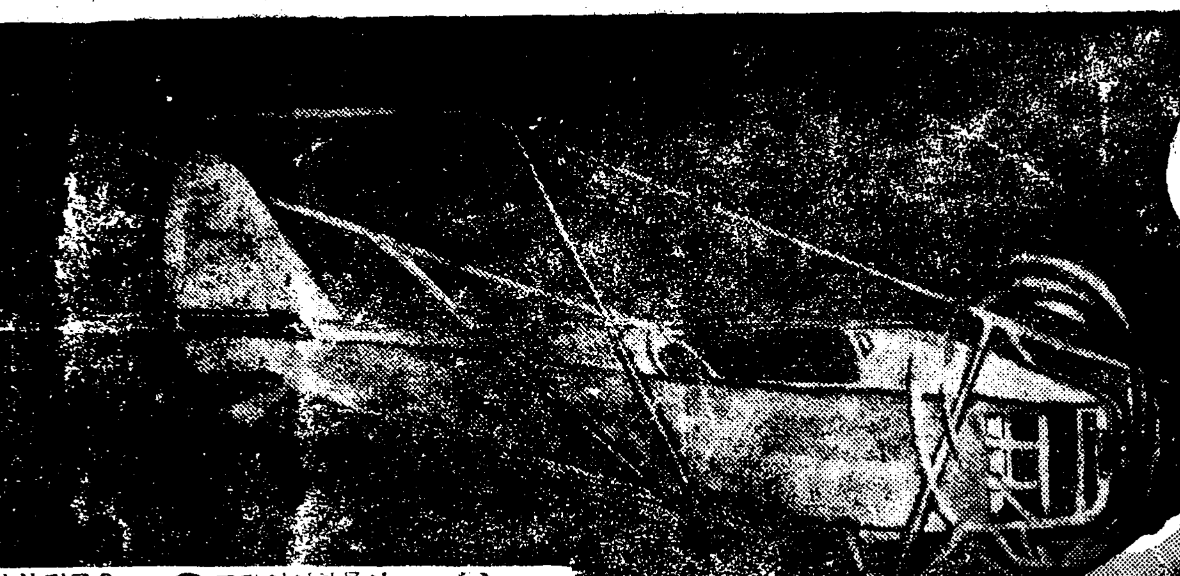
地料引上에不應으로 住民에게撤去를命令

【仁川】약진하는 인천이라는 미명과한이 그고인천가지 부근일대 지가불등이 병행되고잇는반면에 이주상중으로 고통을 밧고잇는것은 차지인(借地人)들이다 인천부국리(仁川府金谷里) 십이번지일대 전명주(金明俊) 소유도지십륙호의 지료는 그간매평오전이든것을 올연지난 이십일경에 십전으로인상하엿다는통지를 차지인전부에게 전하게되엿다 주민측에서는 지가의 등귀와 한가지 지료를 인상하는것은 떨연의사실이라고 미드나 일반주민의 사정은 도모지 도외시하야 바리고 일의배인상을 감행한다는것은 너무나 무최하다하야 지주에게 수차진정하엿스나 전연이에 불응할뿐아니라 인상지료에 불응하는자는 철저하라는 최후의말까지 함으로 부근주민은 관계당국에 진정코자방금준비중이라한다

연한개에 목숨바꾼少年
高壓線感電卽死

이십구일오전열한시사십분경에 시내 광화문통(光化門通)네거리 긔념비각(紀念碑閣)여페서 열네살되는소년이 연을날리다가 그연이 그고압전신주에 걸렷슴으로이를때려 전신주꼭대기까지 올라갓다가 삼천오백『볼트』나되는고압선에 감전되여 그대로떠부러 타죽고말엇는데 소관종로서에서는 경무주임이하경관이 곳현장에가서 조사하엿스나 누구라는 [illegible] 복을입고 상업학교야학부 교모를쓰고잇는 그신원을알수업서 시체는 경성부청으로 넘겻는데 한창구경하든 군중으로 이거리가혼잡을 이루엇섯다(사진은현장)

속병 체중엔 겡오ー를쓰시오 (元王)



겡오ー의효능

- 만성위장가다루(慢性胃腸加答兒)
- 위괴양(胃潰瘍)
- 위아도니ー(慢性胃弱)
-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 위하수증(胃下垂症)
-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 급성위장가다루(急性胃腸加答兒)
- 식욕업는데(食慾缺乏)
- 소화불량(消化不良)
- 위확장(胃擴張)
- 기타위장병(其他胃腸病)

약갑 삼원 이원 일원
、오래된데는삼원짜리를쓰시오

약은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서요 망일로 발송합니다
지방송료선금이면십오전 대금인환엔 삼십오전입니다

京城西大門電停側(五)

鮮滿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위장병 속병체중 에대하야

◎급성위가다루 急性胃加答兒
이병은 폭음과식을하거나 음식물중독(中毒)과냉과열(過冷過熱)한음식또는썩은음식을먹고나는일이만흔대 식욕이업서지고 기분이낫부고 구역나고 갈증이나고 가슴이아푸고 현기가나는일도잇고두통신열도난다

◎만성위가다루(慢性胃加答兒)
음식을 잘씹지안코 먹는까닭으로 나는일이만코 술과육하는지로 운동이부족하든지 불규측한 식사를하든지 식후에마음이불편하야 잘내리지아니하든지 선천으로 기질이약한사람에게만타도 급성위가다루를잘고치지아니하야 나기도한다 급성보다 고통은적으나 치료가 힘든다 식욕이몹시잇슬때도잇고 아조업슬때도잇고 트름이항상나고 가슴이빠근하고 변비중이생기고 언제든지고단하고 빈혈증이되고 몸이점점말너간다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소화불량, 위괴양과함께나는병인데 위액(胃液)에 염산(鹽酸)이 너무만허서 나는병이다 식후한두시간후에 위가(가슴)를시 아푸고 쓰리고 욕지이 내릴때에더욱 오목가슴이아푼증세이다

◎위아도니ー(慢性胃弱)
위병은 위근육(胃筋肉)「발주머니」에 힘이업서저서 나는병인데 보통위약이라고 한다 항상 먹는것이 명치에걸린것갓고 속이 시원하지못하다

◎위확장(胃擴張)
이병은 과음과식하는관계로 나는병인데 발주머니가늘어나서커진병이다 가슴이 항상 더부룩하고 아푸고 트름이 나고 음식을토하는일이만코 허루징이나서 알만토어도배부른줄을모르고 창증이생긴다

◎위하수증(胃下垂症)
위가아래로처저서 나는병인데 위의활동이 불충분하야 변비증세를이르킨다 위확장증과 근사하며 조곰만하면놀나고 겁쟁이가되는일도잇다

◎위괴양(胃潰瘍)
이병은 속병중에 가장어려운병이다 위주머니가부르고진물는병이다 음식을과음과식하고 잘씹지안코먹든지 모래나뼈를삼키여 위가상하야 나는일이만타 또몸시운동을하야나는사람도잇다 처음에는식후가슴이조곰씩아푸고 음식을토하고 잇다금피도석겨나온다 심하면 피를만히토하는일이잇서서 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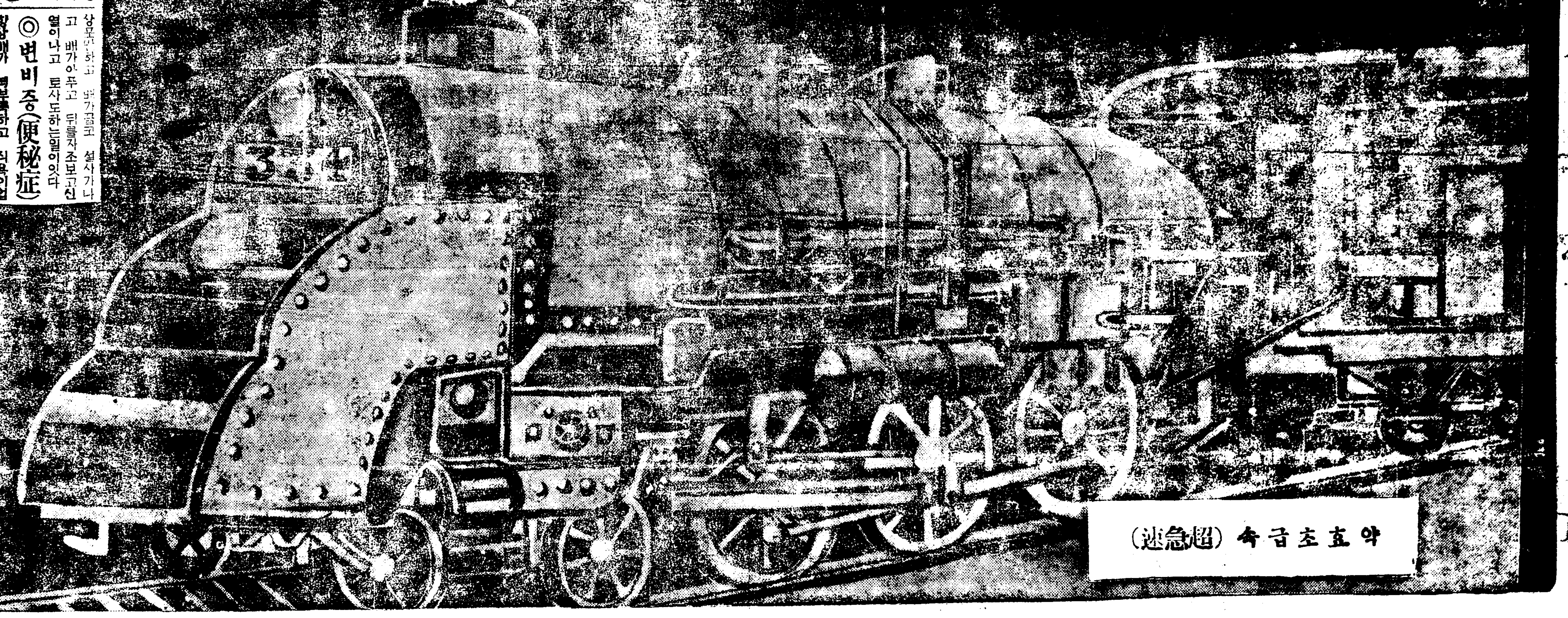
◎장가다루(腸加答兒)
원인은 위가다루와갓고 배가항상모만하고 배가굴코 설사가나고 배가아푸고 뒤를자조보고신열이나고 토사도하는일이잇다

◎변비증(便秘症)
항상배가 떠부룩하고 식욕이업고 정신이깨끗지안코 두통이나고 몸이피곤하고 뒤가 언제든지조하고 여러날뒤를보지못하고 치질이생기고 불면증이되야신경쇠약, 현기증이난다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항상신물이오르나리고 음식을보면침이올나오고 입맛은업고 공연히군것이먹고십고 가슴이쓰리고소화가잘안되고 심하면아조입맛을잃케되야 몸이수척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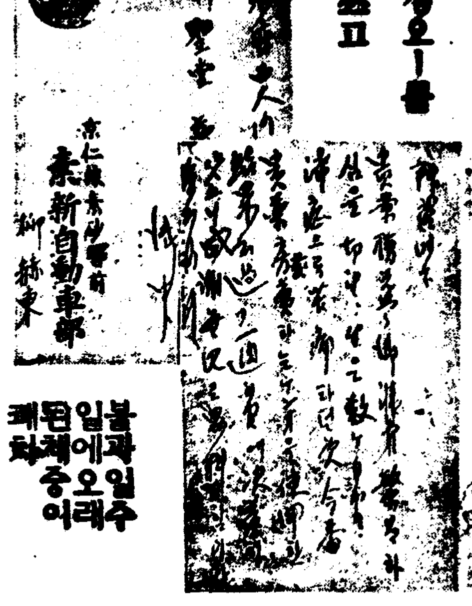
효력최극상
세계에서 유명한 「훼펜ー」약제도 만히들고신
발명한고귀한약이더욱만히드럿답니다 약효제일

만일겡오ー의이든지 어상일쓰지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 광고와틀니는점이 잇거나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약을 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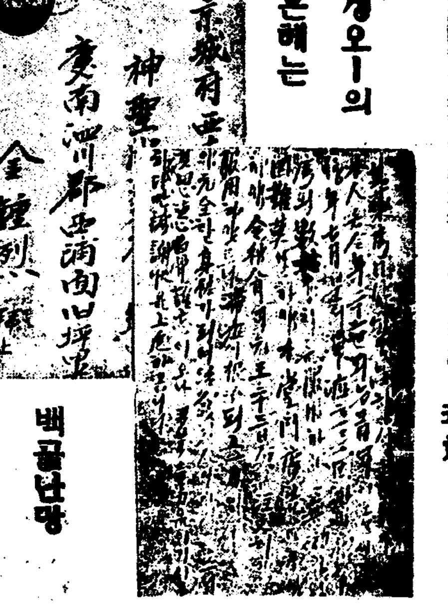


약효초급속(超急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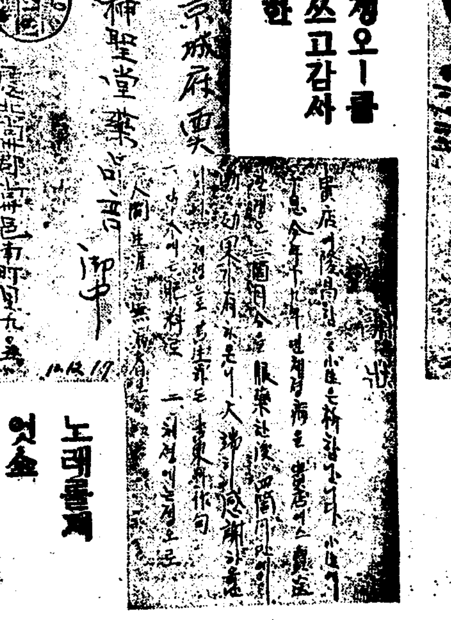
하로에천리길을번개갓치달니는기차(汽車)는엇지하야이갓치기운차고쌔른가? 말할것업시기관차(機關車)의힘이다 사람모소화기관인위장이(消化機關 胃腸) 신체모든활동의원동력(原動力)이되는것이다. 위장이약하고서는 진수성찬도 (無味)에업고 몸이쇠약하야 만병의근본이되는것이다 몸이약하고 신병이잇고야 세상낙이다ー 냇것이며 부귀영화며 사회상에서 무슨활동을할수잇스리오 신외무물이오 무병이장자라 무엇보다도 튼튼한위장이건강에제일이다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분은 약중에제일조흔『겡오ー』를쓰시오 몸을보하는 소화가잘되는 체중을풀고 위장을다시소생식히는 고명한약입니다 답치하는이감사장이 사실로 귀대(偉大)한 약효를증명(證明)함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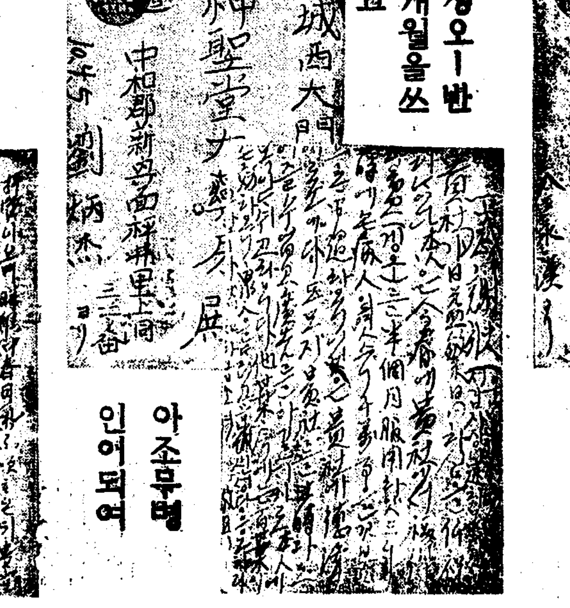
겡오ー를 쓰고
불과일주일에 오래된체증이 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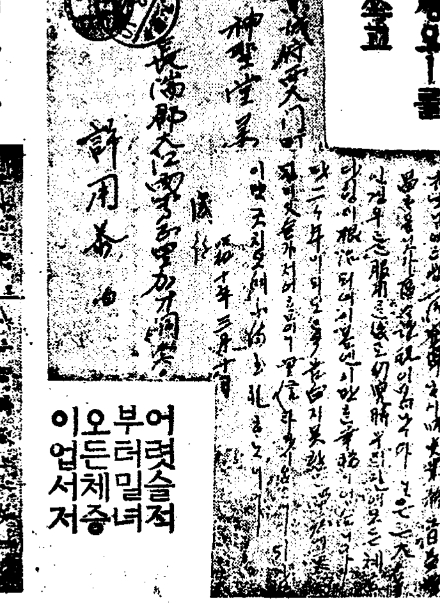
겡오ー의 은혜는
백골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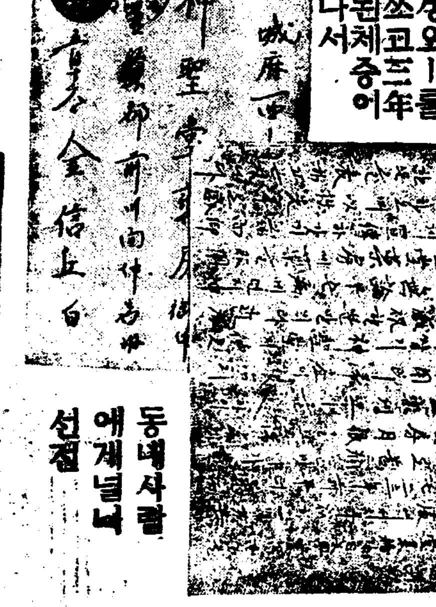
겡오ー를 쓰고감사한
노래를지엇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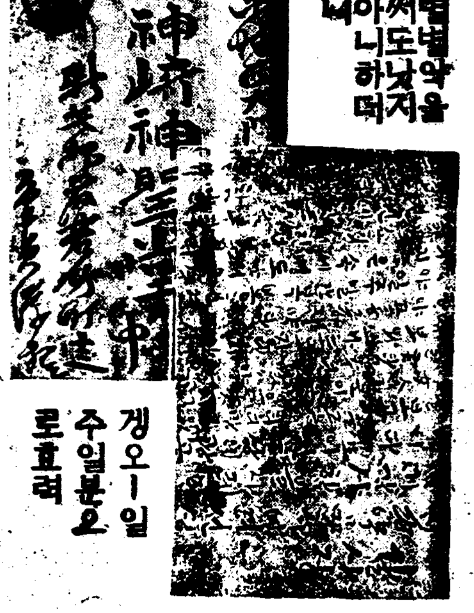
겡오ー반개월을쓰고
아조무병인이되여



겡오ー를 쓰고
어렷슬적부터 밀녀오든체증이 업서저



겡오ー를 쓰고三年된체중이 나서
동네사람에게 널녀선젼



별명약을 써도낫지 아니하더니
겡오ー일주일분으로효력

하늘높히

시골이나 도회나 공긔는 모다 나뿌다

머피노코시골공긔를조타말얼 그보담저항력을기르자

그저 때때 노코 도회지는 공긔가 나쁘고 시골은 공긔가 조타고들 떠들고 잇습니다. 대체로 보아서는 올흔 그런치 안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네의 상식이란 만흔 경우에 잇서 뿍 그대로 들어 맛지 아는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도회지와 시골의 공긔에 대한것도 역시 한 상식론에 떠 넘어 가지 안는 것으로 뚝 그러케만 미뎌서는 되지 안을 것입니다. 시골ㅅ공긔라고 절대무조건하고 신선하다거나 깨끗하다 끄는 풀수 업습니다. 시골ㅅ공긔는 시골ㅅ공긔대로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치는 독균을 포함하고 잇슨 수가 드물지 안습니다.

공긔가 나뿌다는것은 대체 어떠것을 가르치는것이냐하면 공긔중에 첫재 연긔와 껨영이 만타거나 둘재 몬지가 만타거나 셋재 유독까쓰가 석기어 잇다는것입니다. 유독까쓰는 말할것도 업거니와 연긔와 껨영이나 몬지가 만하도 첫재 자외선(紫外線)이 잘통치 안코 둘재 병균이 끌코 셋재그 자체도 호흡긔관(呼吸器官)에 해를 끼치는것입니다. 그런데 도회지공긔는 이세 가지의 조건을 다구비하야 가지고 잇다시피합니다. 연긔와 껨영이 만코 몬지가 만흔 것은 물론이요 각희 화공장이라든지 개천이라든지 심지어 자동차에서까지 유독까스를 피우고 잇습니다. 거긔비하면 시골은 연긔나 껨영도 별로 업고 유독까스는 벼구나 더업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 도회지보담은 공긔가 조타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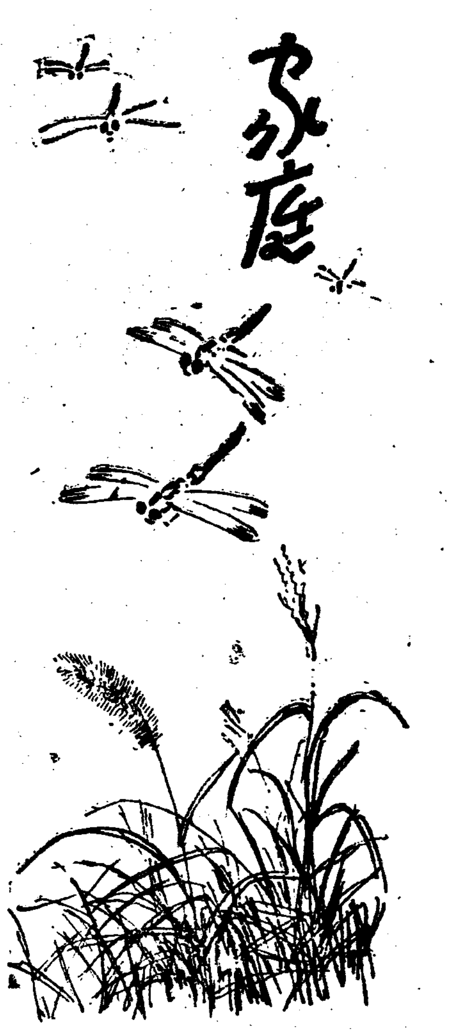
×

그러나 시골은 도회지처럼 거리나 길이 잘되야잇지안코 또 그우의 포장(鋪裝)도 업는까닭으로 바람이 부는데 따라서 몬지가 이리 몰키고 저리 몰킵니다. 조그만 몬지는 고사하고 가는모래까지 공긔속에 들어 잇습니다. 사람이 만치안한 시골서 아츰에 집을 치워 다가 저녁에보면 창틀으로 마루바닥으로 모래가만습니다. 그럼 모래가 공긔속에 들어잇다는것을 이저서는안 될것입니다. 이러한 몬지나 모래는 숨쉬는데 딸아서 우리의 호흡긔ㅅ속으로 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 점막분비(粘膜分泌)에 부러서 종종 의 병을 이르킵니다. 를 아모리튼시 도회지보담 시골이 자외선이 만히 비치는것은 사실입니다. 오죽 그 정말은 시골ㅅ공긔가도 회지ㅅ공긔보담 조흔 점 입니다.

×

그렇이 아니라 시골ㅅ사 사람들이 강하이 도회지에와 서살면 호흡긔가 유난스럽게 나빠저서 구경 폐결핵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호흡긔관에는 저항력(抵抗力)이 약하기때문에 다른 사람보담 탈이 나기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회지말고라도 리상적으로 사람의 몸에 조흔 공긔는 그러케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차라리 저항력을 길러서 나쁜 공긔를 벼여 날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단지 이미 호흡긔병을 가진사람은 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긔 조흔데를 찾저가는 것이 당연하지오만은 무조건 서울이라고 다 조흘 줄 아러서는 안됩니다.



家庭

남 밋다가 유혹당키 강짜와 허영심

당신에게는이 런점이업나잘 생각해보십소

우름이 터지면 종일가는 정녈 업서도 잇는체 허며움 부리기

히스테리

『히스테리』는 녀자에게 생기고 남자에게는 신경쇠약이 생긴다하야 『히스테리』는 젊은 녀자에게 부른병으로 세상에서 압니다. 다만 그것은 잘못이지요. 남자에게도 문인에게도생깁니다. 단지 녀자는 감정이 예민해서 사세한 외계의자극에 반응되기쉬운데 『히스테리』는 아리한 가장예민한사람에게 잘생기니까 녀자에게딸린 병처럼 역여왓든것입니다 『히스테리』라는것은 『히스테리』성 성격을말하는것인데 감정적인사람, 의지적인사람이 『히스테리』가 되엿슬때는 특징잇는 표정과 병증(病症)이 잇는것인즉 자기의거동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자기가 『히스테리』에 걸렷는지 혹은그러치안코 감정적인가이지 생각을 끔들히하는이가이지 의지 인 지록거이 판단할수 잇슬것입니다.

가정적 인사람

감정이란것은 자극성이잇는놈이라 감동하기쉽고 또뒤바뀌기를잘합니다 그러키때문에 조고만일에 울고웃고 여지것 명랑하다가금 방우울해저서 울기시작하면외 종일가도 그치지채 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흥분들 해 질정이업고 애인이생기면 부모형제를 다잇고 사랑에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애인에게는냉담해지고 또친구간에 조코납분것이만하 서로 친해서사괴는 때엔맛나다가 무슨일이 수틀리면 원수처럼 역이게됨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질투심인데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이지만 대단치 안흔 일을가지고 내외다툼을 이르키고 밋도끗도업는 엉터리를 들고 이러나서 야료를이르켜 남의눈이고 뭐고 명예가다뭐냐는듯이 날뛰어망신을 사게합니다 그다음에는 누구나 조와하고 납버하는 거기에대해서 정반대의 현상을 이르킵니다. 고약스런냄새를맛기조와한다든지 남이못먹는 고약한것을 먹고시퍼하고……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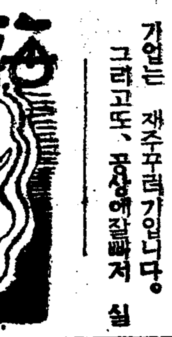
이런류의사람은 제욕심과허영심이 강합니다. 더욱이 남의이목을 끌기조와하야 고흔옷을입고 멋을부리고, 자기형세에지나친 사치를하야 우월감을 남에게보이랴고듭니다. 이런사람은 병원에입원해서도간호부아페호사자랑을해서 인끼를끌고십고, 어디가조곰만아파도 금방죽는시늉을하면서 주사를노아달라고 법석을합니다.

그리고 얼른보기에 말주변이조코, 세상것을 다잘아는것처럼 풍을치지만 기실기픈데가업는 재주꾸럭기입니다. 그리고도, 공상에잘빠저 실… 그리고도 의지가박약해서 조하고 언덕한생활을 질겨 마는일을하든지 오래계속못하고 금방실증이나며 술, 담배, 아편……이런것에 중독이되는사람도 이러히스테리ㅣ합니다.

◇

이상과가튼 성격을가진사람 대단치안흔일에 큰일을저지르거나 엄이빠저잇거나 이중인격(二重人格)자의하는것을 이룹니다.

자식실흐면 리혼



조선서는 아해못난는 안해는 리혼을당하는수가 잇는데, 독일서는 남편이 생활이 군색하니 형편이 필때까지 아해를나치말자한다해서 안해되는사람이 남편을 걸어 리혼소송을하야 리혼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바닷답니다 이판결에 불복인 남편은 고등법원까지 상고해보앗스나 역시 긔각이되고말어서 하는수업시 리혼을당코 말앗답니다. 아해를 나호니 먹일것이업고 그러다하야 아해를 안나호랴니 리혼을 당하고―― 좌우간 사나히는 사라가기 어색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것든 옛말슴 "잔침은약이다"

담배피우는 사람들에게 충치가 적은것도 그까닭

살으로써 오른다면지 헌의가튼 것이 『나의잔침』이라하야 자고 일어나면서 입안을 시치기전의 침을 바른다든다고 하는것은 옛날부터 전해오는말들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보아서 훌륭한 근거가잇다는것은 침속에들어잇는 『로단카리』라는 살균성분이 잇서그것이 살균작용을 한다는데 여러학자들이 말이일치되여잇습니다 개나고양이가 제살이상하면입에이고 핥는것도 결국은이러한 리치에서 나온다고 봅수잇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만히피우는 사람은 충치를 앓는이가 적다는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치과의사들의 말로는독니코친』이라는 담배독이 살균력이 강해서 충치를방지하는 까닭이라고 만알고잇섯스나 요사히로시아의 세계적의학자로 이미고 인이된『파블로프』박사의 제자『리킨트』씨가 실험한결과에 의하면 『니코친』의덕으로 충치를 방지하는것이아니라 담배를만히 피우는사람은 살균력의 주체되는 침속의『로단카리』의 흘너나오는 분량이만흐며 적게 피우는사람은 적게나오는데 전연안피우는사람에 비하면 적게피우는사람이라할지라도 약배나 더만히『로단카리』가나온답니다 그리하야담배피우는 정도에따라서 『로단카리』의 분량이 정비례되는것이랍니다 이것을 사람에나 증생에게 실험해보면 명확히판명되는것입니다

이로미루어 보면종래 담배피우는사람이 충치를 앓치안흔것을 『니코친』의 살균작용으로 만알고 잇든것이 잘못되여잇습니다 담배는『로단카리』를 늘도록 작용하고 『로단카리』는살균력이 강해서입속에 잇는균을죽이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에서 말한 『잔침』의살균력이라는것도 여과에 판명하야 훌륭한근거를 가지고잇습니다

삼전이될찌, 넘을찌 편지중량다는법

편지를 써서부칠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륙푼이 드러야 하는지 그러치안흐면 삼전으로 되는지 알수업서서 곤란할때가 만습니다 저울이잇스면 다라보면 될것입니다

려 실전자리변준을 실에매여달고 또한편끄테 편지봉투를 매여다러보십시요 편지가 올너가면 삼오그람이 안되는것이며 편지가 나려가면 삼오그람이 넘으니 삼전우표는 안되고 륙전어치를 부처야됩니다

콜크병마개는 이러케빼십시요

약병이나 기름병마개로 꼬저둔 『콜크』는 쓸때마다 번번히병마개빼기가 힘드는것입니다 잘못하면 『콜크』가 상해서 그만똑 독떠러저버리고 심하면 마개가 병속으로 드러가 버리는수가잇습니다 그러므로 병마개가 『콜크』로 되여잇는물건이나 약을사거든 즉시안전면도날로 『콜크』의 가장자리를 한개를 사전과가티 꼬저두는것이편리합니다

진간장의곰팽이

여름철이되면 진간장에곰팽이가퍼서 곤난할적이만습니다 진간장에퍼는 곰팽이를업새버리고 다시는안피게하는데는 요사히흔히약품을쓰나 이것은대개가사람이먹으면 해로운약품입니다 더구나 약품을 타는것은 그분량가튼것도 잘알아너허야할터이므로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약품을쓰지안코 간장을 솟에 들어 부어서 다시한번 끄리면 곰팽이도 업서지고 맛도 조화집니다 너무 끄리지 말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번 계속하여서는 도로허간장을 버리게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려객기의호화판

미국과중국을 련락하는 태평양횡단정기비행기는 작년에 비로소 완성되엿습니다 수백만원을드러미국에서맨든 그비행기는 상항(桑港)과 광동(廣東)간칠천오백마일을 한오십시간에 다니게되엿습니다 이비행기는 마치여러사람을태우고 한시간속력이 일백오십칠마일이며 비행기내부는 기차이상으로 호화이꾸며 오락실까지잇습니다

☆曆☆

八月三十日(日) 陰丙子七月大(十四日) 甲申·水·虛·建

●上弦二十五日(陰初七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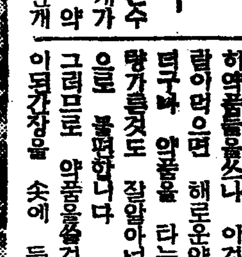
●白露九月八日(陰廿三日)

『호강』이병드려노은 도회지의청춘남녀

맥시풀리어 느러지는병 호미를들면 담박낫는다

요사히도회지에 올롱거리고 돌아단이는 소위『모-던뽀이』『모-던껄』들은 신경쇠약환자가 대부분이며 허리가 가는려저서수양버들처럼 기운이 한풀어처업고 조곰만무리를 하여도 허리가 아퍼서 못견듸겟다는데 이러한 호강에 뜨인 병아닌병을 가진 환자들을 단바 곳치겟다고 장담하고나선 의사가 잇습니다 대판의 별소(別所)의학사는 호강에뜨여서 병든이러한환자들을 일백오십명이나 모아가지고 팔주령(八洲嶺)이란산에올너가서 현미(玄米)로밥을지어먹이고 아침일즉부터 꽹이와 쌉개이를들여서 산길을 개척하고 흙을파고 옮기도록 일을시켜서 속행더니 멋업부리고 서남개비처롬가느다란 허리가 호고 잠이잘오는 신경쇠약이라고 어리광을부리든 『모-던껄』들이 쾌하얏슴니다 『모-던』『모-던껄』『모-던』『병에걸리지안은사람은』 분들은 하로밥비 떠가 부역이라도하야 제일일것입니다●

학의정가



결핵과매독인가

문 설혼세살된남자인데 작년봄부터 거칠과가래가나더니 가살도는 역구리가 걸금압흐며 체절도약하야집니다 가정치료법을 가려처주십시요 도재작변에 매독에걸이엿다 나슨일이잇는데 그후부터는 늘흐량에떰이나며 하초가 냉하며 근일에는 부어올 나오는것갓슴니다 무삼병이오며 또는 적당한약을 가르처주십시요 (閣門苦痛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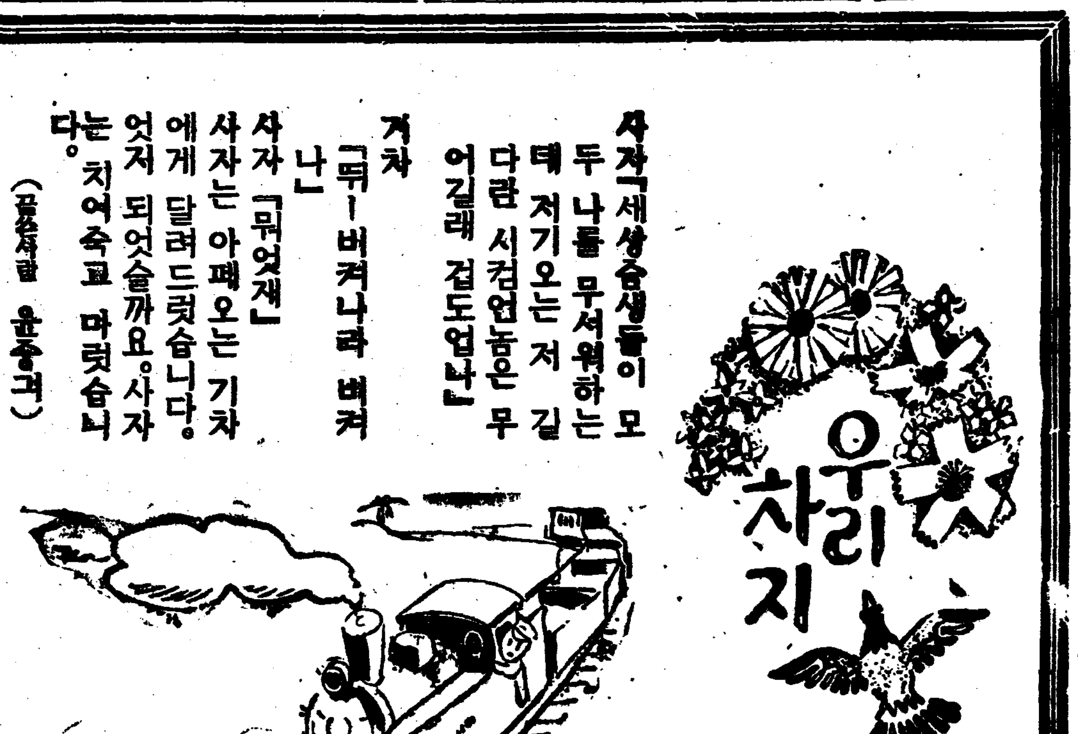
답 재작년에 매독에걸리고작변에 거칠과가래등증세가잇슴을보면 결핵일지도 모르겟사오나 또는 매독성 륵막염인지도 모르겟습니다 좌우간 혈액반응(血液反應)을 검사하여보십시요 매독으로인한 것이면 치료방법이 전연다름니다 다흡량이붓고 랭한것은 매독으로 인한것보다도 림질(淋疾)로 원인될이만흐며 가정치료로 난은 정하게누어 잇서국부를 습포케 하는 도리외에는 의사의 지도가 적절히 필요합니다 (鄭泰院長 孫鏡淑)

여러가지증세

문 사십삼세남자입니다 신경쇠약또는신장약 위약이만코 의사들에게진찰하니 이와가리 각각다르진단을합니다 돈도업고 룡호한약도를나서 셜어변을 한 죽엄으로지내왓습니다 무삼치료 재는업슬까요 (보성생)

답 무슨말인지를알수업슴니다 어렵습니다 방중엄으로지내면 상상하기어렵습니다 당신과가튼 나히에 여러가지증세가 더욱히 신경계통의증세가심하면 호르몬주사를하여보시요 경비는적지 계됩니다 (鄭泰院長 孫鏡淑)

우리차지



사자『세상즘생들이 모두 나를 무서워하는데 저기오는 저 길다란 시컴언놈은 무어길래 겁도업나』

거차 『뒤-버커나라 벼켜나』

사자 『뭐엇재』

사자는 아페오는 기차에게 달려드럿습니다。사자 엇지 되엇슬까요。사자는 치어죽고 마럿습니다。

(공조제란 윤종권)

ムータラプブラク

구라부푸라팜

藥用 夏季의家庭에

一家一瓶

治療보다豫防！皮膚衛生과美粧效果와의兩全의目的을達成하는藥用구라부푸라팜은그藥理効果가훌륭해서더욱愛用者數가늘어갑니다。

婦人들의 化粧下로 夏期의化粧에 使用하시요 죽은깨 기미를 防止하야 大好評입니다。

男子들의 面刀後에 面刀後에도 使用하시요 구라부푸라팜의 作用은 面刀독을 止하고 使用後에 快感은 特別합니다。

小兒들의 땀띠에 또 땀띄의 어린이와 ……에 부처주시요 땀띄는 적어집니다。

中罐…17전 大罐…25전 中瓶…50전 大瓶…1원

！非是に後剃髭·下粧化！防豫をもせあ·みし·すかばそ

銷夏漫筆 白話詩의 贊成 ……【廿二】

湖岩

요새 病床에 누어 窓外의 夏雨소리를 드르면서 어떤때는 너무나 孤寂하야 무근漢詩를 뒤적거리기도한다。

그러다가 내마음에 맛는趣味잇는 詩句를 發見하면 조흔親友나 맛난것처럼 눈이 번적띄운다。

山中何所有。嶺上多白雲。只可自怡悅。不堪持贈君。

이것은 梁陶弘景의 自己生活의 一面을 그려낸 東洋隱逸的 情趣가 넘치는 代表名句이다。

唐皇甫冉의 山館絶句에 이陶弘景의詩와 어렴프시 비슷한것이 잇스니

山館長寂寂。閑雲朝夕來。空庭復何有。落日照靑苔。

이것은 詩人意想同으로 혹은偶然히 相似하게되는지 또는 意識的으로 模倣하엿는지 그는 알수업스되 어쨋든지 後人의詩가 前人의詩와 그情趣가 共通될뿐 아니라 그字句까지 똑同一한例도 잇는바다。이를테면우리申紫霞(緯)의 會寧嶺詩聯句에

天垂眺白雲靑外。秋入丹砂點淡中。

이것은 宋陸放翁詩의 天垂眺白雲靑外。人在駝紅差綠中。과 一句가 全然히 同一하다。그러면 紫霞가 放翁을 剽竊한것인가 그러것도 아니다。紫霞는 이것을 辯明하엿스되

『古今人의 詩가 不謀而同한것이 잇스니 내일즉 燕行時에 會寧嶺에서 一句를 어덧는데 스스로 佳句라고 생각하드니 그後放翁集을 보다가 내詩와 똑同一한句를 차저냇다。放翁은 二句가모다 楊子雲의 山水記에서 取材하엿고 나는 子美와杜陵에서 取材하엿는바 後人은 반드시 剽竊햇다고 할지나 나는決코 剽竊한것이아니요 偶然히 가태진것이라고 하엿다。』

申紫霞는 다시 辯明하야 말하기를 自己詩境이 能히古人에게 到達하게된것을 기뻐한다고하엿다。

그러나 古今詩中에 어찌다가 이申紫霞처럼 偶然히 相同할수도 잇스나 이것은 아주드믄일이오 意識的으로 模倣乃至剽竊하는것이 흔하다。前者의가장顯著한 一例를 들진대 第一流大詩人인 李白가를 이도 鸚鵡洲詩는 崔顥의黃鶴樓詩를 그대로 模倣햇다는것이 아니냐。구려여 一二회例를들것도업시 詩人사이에 이러케 模倣하는일은 唐代뿐이 아니라 宋代나 明代에 와서도 얼마든지 볼수잇는바다。

一夜山中雨。林端風怒號。不知溪水長。蕭曾釣舡高。

이것은 同朝人으로 高麗末에 半島에 歸化하게된 有名한(一遜의山雨詩로 明詩綜에도 실리어잇는바 沈德潛은 이를 激賞하야갈우되『純乎天籟』라고하엿다。그런데 요새 中國上海 어느書店에서 刊行한 宋元明詩에는 이詩를 明人施武의作이라고 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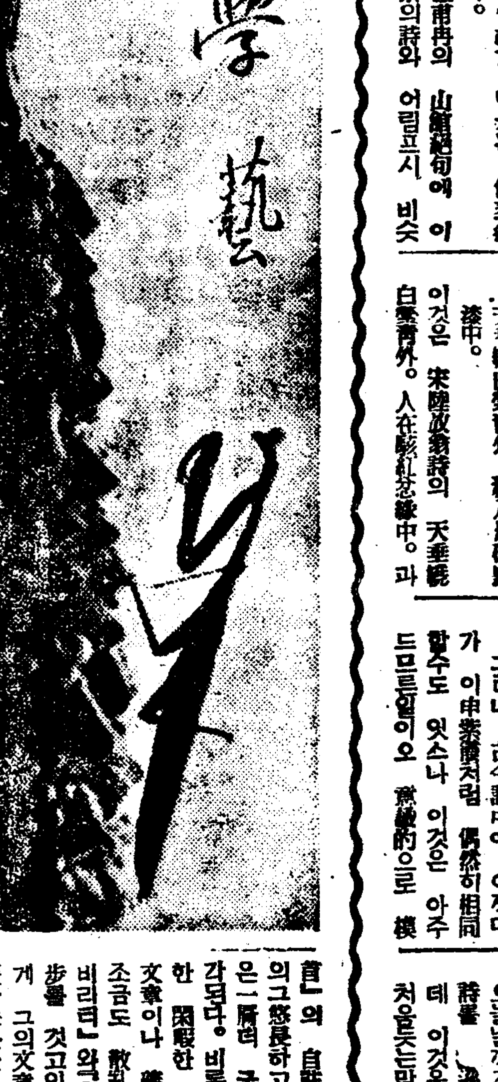
오늘날까지 一般人이 이山雨詩를 遜의作으로만 알엇든데 이것을 施武의作이라함은 처음드는말이다。혹은 이것이 遜의詩를 漢武의詩로 잘못 저긴것이아닌가! 잘못저긴것이어니라면 반드시 剽竊한것이되고마나다。

朝鮮에 流行하는 大東詩選에는 이 遜의 山雨詩를 적엇스되

一夜山中雨。風吹屋上茅。不知溪水長。只覺釣舡高。

이것은 第二句가 全然히 갓지아니한즉 어느것이 올흔지 모르겟다。

오늘날漢詩는 有唐以來 千數百年동안 꼭가튼形式으로 작구되푸리하게됨으로 거의詩句가 비슷비슷하야 이것이 저것과갓고 저것이 이것과가태여 흔이模倣이나 剽竊한것처럼 되고말뿐것이다。漢詩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럿스니 根本的으로 革命을 하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中國의新人들이 白話詩를 力倡함은 우리가튼 門外漢으로도 그럴드시 首肯하는바잇게한다。



學藝

文章論 現役評論家의群像 ……文章으로본그들의印象……

③ 朴英熙

梁柱東氏

近間에는 氏의文章을 볼수업다。最終으로 내가 본듯한것이 今年初春 東亞紙上에서『詩一首』라는 自註한 一文을 보앗슬뿐이다。過去 文壇에 論戰이 바야흐로 白熱되엿슬때에는 氏도 그論陣의 一員으로 計算하지 안할수업는 地位에 잇섯다。그때의 氏의 文章은氏와 同思想을 가지고 論陣에다 왓든사람들中에서는 學問的 할수업든 特異性을 가지고잇섯다 무엇보다도 그의 文章에서밧는 印象은 沈重한것과 堅忍한 힘이、表面에 얼는 나타나지도 안코、文章을 읽을수록 漸次的으로 나타나는것이다。沈重은하나 憂鬱하게까지 이르지 안코 堅忍하나 倦怠에까지 이르지안는 文章이니、시작이나 뭇이나 如一한 底力으로 配置된 文章이다。

그底力은 끈기잇고 줄기차서 거진 밋쌀머리스럽게、흥은기승차게 끌고나간다。그대신 그의文章은 미듬직해보이며、아모것도 업는 그속에서라도 自己獨特한 힘의 創造가 充分이 보이는것이 그의 文章의 性格이다。

그러다가도 論敵에게 異常狀態로 덤벼들때는 그 巧妙한 挪揄로서 論敵의 氣勢를 꺽그려는手段도 그의文章의 特色이라고 아니 할수업다。

말하자면 輕快하지안흔대신에 沈重하고、銳利하지 안흔대신에 底力이 잇서서 늘 一定한 重量을가지고 나간다。一見 **漢文章의** 氣風을 보이면서도 現代的氣質을 移植하려는듯하야 文章은 悠長하며 晩慢하나、古典的趣味에 沈淪되지 아니하고 亦是 現代的 氣質로서、그中心을 삼으니、그悠長性은 그의 文章의一形式에 不過한듯십다。

그런데도 더욱이 그의 文章에서 엇는 將兼되는바는 文章이 가지고잇는 高慢性이다。이 高慢이라는것은 납븐 味의 形容이 아니다。가령 論戰을 하는 境遇에는 그의 文章은 論敵의 細細한 論目을 默殺하야 그우에다 自己의 論目을 그냥 떼어버리려는것과 普通論文에는 自己의 論目에 少許의 反省도 하는듯한것이 업시 그냥 自信滿滿하게 論을 展開하는데서 어든 氣分을 나는 일홈해서 高慢이라고 하엿스니 말하자면 노블에 갓가운 高慢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想이 서고 論筆에 熱辣하면 누구나 文章에 自信과 獨斷이 나타나는것이 흔한 일이지만 그래도 늘 自論의 未備한것을 暗示하는 例가 만흔데 그의 文章은 어느때나 그러한데는 근심이 업다。한번 馬上에 올나안즈매 左右와 뒤를보아서 무엇하랴! **氣勢萬丈**하야 말소리 要亂하게 아프로아프로 달려가는 氣質이다。오래동안 氏의 評論을 對하지못하다가 今年 孟春에『詩一首』의 自註한 一文을보니 氏의그悠長하고 支離한듯한 底力은 一層더 굿게서서 잇는듯이생각되다。비록、中年의 心境을말한 閑暇한 情趣임에 틀림업는 文章이나 健平한文章의 羅列이 조금도 散亂하지 아니하고『노비리티』와『호듸네스』의堂堂한武步를 것고잇스나 어듸인지모르게 그의文章에는、古色蒼然한頹廢를 하는듯한것이 눈아페 어른거린다。이것이 나의偏見일는지몰나도 讀者여 하엿스나 나의感想을正直하게 表示하기위하야 끄트로이 말할수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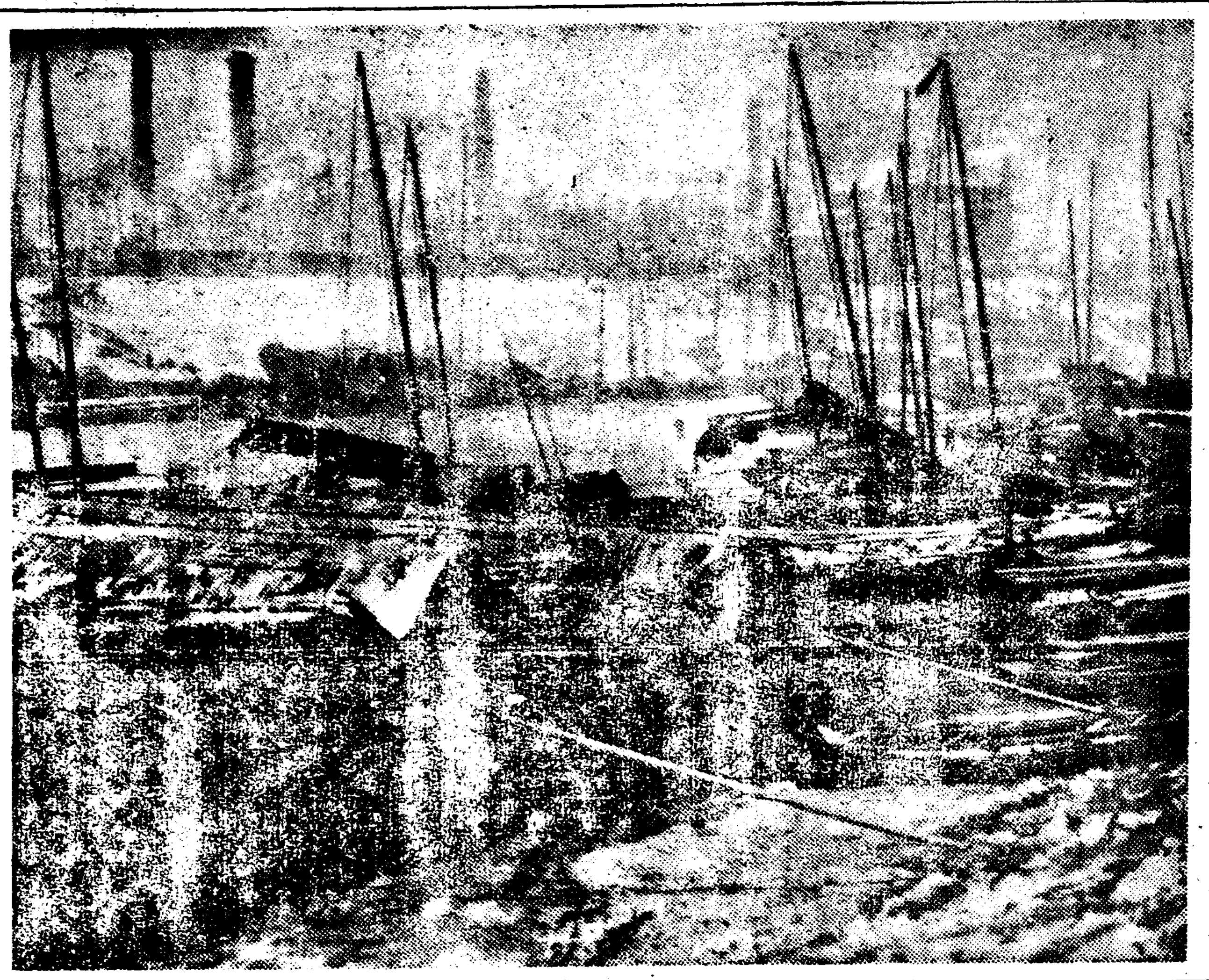
李軒求氏

氏의 評論을 읽은 나의 過去의 記憶이 明確하지못하므로 나는 그의 近作『理想人間의 創造者 〃로맹로랑〃에게』라는 一文을 읽고 그 文章의 感想을 쓰기로한다。

文章은 아모 支障업시 달려나려가서 極히 順坦하기만이아니라 感激과 苦悶의 情熱的 底流가 흘러간다。그러나 이 底流의 速度는 文章의 終末까지 늘 同一한『스피드』를 保存하고 잇서서 **그底流는** 조금도 激流로서의 加速度的 危險이 업다。그 感激이라는것도 哀傷的이 아니고 늘 男性的 純朴과 靑年다운 憧憬이 나타나고 잇스니 이 文章은 始終이 如一하게 倦怠업시 읽게한다。書簡文體는 다른 評論文에 比해서 自己의 意思를 發表하기에 보다더 便利할술로 알기는 하나、그러한까닭에 보다더 感激과 興奮되기쉬운文章이 잇는 대신에、그의文章은 激하되 度를 넘지 아니하고 憧憬하되 空想的이 아님 秩序잇는 文章의 排列이、그의 文章의特徵인듯십다。어떠한 底流를 暗示하는 文章은 어느때나 한 힘의 存在를 表示한다。그런데 이 힘은 어떠한 方向을 指示하지 안코 사라지다가는 다시 생기고、다시 생기고는 또 살러지려는것이 잇스니、말하자면 不分明한 氣分이 文章과 文章을 貫流하고잇는듯이 나는생각된다。

숭을 숭글하고 貴여겨서잇는文章의 魅力속에서 理念이 살처빠저나가려고 몸을 비비고 잇스니 그러므로 文章을 읽는사람은 그 理念을 잡을듯 잡을듯하면서도 꼿꼿내完全히 捕捉하지못하고 말은것이도 한 애처로운 일이다。音讀하기 조흔 文章이나 **文章의 呼吸에** 맛도록 構成되여서、단숨에 읽기 시작하면 그냥 실룡나자연 내려읽어지는 대신에、다 읽고나면 어디인지 좀 마음에 不足한듯하게 感想되는바가 잇는것은、우에 말한 理念의 販賣가 조흔까닭이 아닌가하고 나는 생각한다。

江上에서、마음의 不足이 잇는것은 西風이 불지 안는까닭이며、山谷에서、拾足지 못한것이 잇다면 그것은 꾀꼬리 노래소리가 업는까닭이라고 假定한다면、流麗한 文章에、不滿한것은 確實이 理念의 活動이적은 까닭이라고 結論하고 십다 그러나 이文章에는、어떠지모르게버리는힘이 속에서복바치고잇서서文章의 性格이明快한 점이 아니라고 할수업다。無氣力하지는 안타。强力한 氣魄이 잇스며그反面에 文章의 술잔的魅力은 이 아니다선에 多少 詩趣性이 잇서보이는것도 이文章의 一特徵인듯하다。



歸船

一漢詩一

『薔薇』—押香 桐岡 考選

佳作五之三

[illegible]

韓世均

斷霞影轉日爭光
描得錦屛裁畵房
深淺花濃紅壓架
短長枝密綠縈牆
渾霑曉露染猩血
輕拂千風分麝香
最是吟詩堪玩處
佳人含笑觀新粧

海外뉴스

「위-버-」博士逝去

「괼팅겐」대학의 희르-바-스·비 !·위-버-」祭典博物館의 館長이엿던 위-버-博士는 七月二十一日逝去하엿다 博士는 世界에다만하나인 人體神經系統實物標本「하리에트」의製作者로서의 斯界에有名한 人物이다 享年九十五。「하리에트」는 本來博士가 부리든 婦人의遺骸로서 博士를 尊敬하야 死後에 그屍體를 博士에게주어서 마음대로 有效하게利用하도록 하라고 遺言하고죽엇다。그女子의 死體를 第一有效하게 利用할것을 決意하고 世界에 類例가 업는 神經系統의 實物標本을만들기로하야 屍體를 끈허서 神經을 全部抽出하고 그것을 板面에 고히붓처가지고 六個月만에「하리에트」의 製作에 成功하얏다 人體의 神經系의 配置를 如實히나타낸 學界의 至寶로 博物館에서는 特別保管을 하여 두엇다

將來의 兵器 (5)

主로電氣用品에關하야

方聖熙

또米國『테스라』氏(高周波機械發明者)는 다음과가튼 殺人光線發明을 公表하엿다

本殺人光線은 二百哩(約五百八十里) 前方에잇는 軍隊를 擊滅시키며 航空機를瞬間에 擊墜시키고 두거운 鋼鐵板도 透過할수잇스며 이光線은 彈丸의 速力의 數百倍되는 極微粒子의流束이라한다。이것으로 보면 醫學上으로말하자면 從來의 火藥으로써 彈丸을 發射하야 有形의力學的 運動으로 人畜을外科的으로 殺傷하는等 鐵拳이나弓矢로하는法과 別로다르지안흔 方法은 벌서 過去이고 새로히新科學의힘을빌러 電波 電子를利用한보이지도안코 들리지도 안는어떤怪力線이 언제인지도 모르는틈에 體內에 드러와 內科的으로 細胞를 破壞卽死시키는 新兵器의 實現時代가 오려고하고잇다

怪力線의沿革

歷史上에 第一먼저 怪力線或은 殺人光線이 戰爭에使用되것은 우리가 中學時代부터 한이야기거리로는 西曆紀元前二百十二年에 羅馬의將『말젤』이『시라큐-스』를 攻擊한때 『알키메데스』가 反射鏡으로 太陽光線을 反射收斂시켜서 敵艦에 出火케하엿다는 逸話이다。그다음은 別로 使用되바가업고 歐洲大戰時의結果 科學兵器의 必要의 刺戟을 바더極秘中에 各國에서도 怪力線의研究에 努力코잇다 其後이에對한 實驗例를 各國別로 하여年代順으로 들어보겟다

(가) 伊國 一九一七年에『쭈-리오·우리뷔』氏가 『로맛카』라는곳에서 그親友소마이니氏의工場의 提供을 어더 그工場에서五百米前方에서 怪力線을 實驗하엿다한다 그곳에서 (秘密이여서 알수업스되 指向性 卽어떤目的하는 方向에만 發送할수잇는 無線電波인 것갓다고한다)를 放射한結果를 工場技師『힐렛델』氏는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고한다

1、記電所의 避雷器에 猛火가일어낫다

2、五百馬力以下의 數個모-타가 電擊을바더 運轉不能에 이르럿다

3、金屬製器具를들고 接地作業中이든 三助手가 電擊을바더 昏倒하고 或은 片腕의感覺을일혓다

4、怪力線의 放射方向에잇는 市街地一帶는 電燈이모다 纖絲가 燒斷되여 消滅하엿다

(나) 佛國 一九一八年에『비롤알벨·헤루쿠』라는 篤志家가私財를 던저 研究한結果 秘密特許를 어더다고한다 그實驗의 原理는 强力의紫外線(波長이極히小하며化學的作用을强히勢力이만흔光線)을 發生시켜 이것을 目的方向에放射시켜서 空氣의 成員인分子들이 電離하여 各其電氣를갓게된다 이電氣를 갓게된空氣는 電線과가티 電話를 通하는 性質이잇는것임으로 이紫外線을 放射한 方向에 高周波의 電流를 同時에 發送하면 이電流가 目的物에까지 通하여가서 高熱을 發生하여 火災를 닐으키게되며 航空機를 攻擊할수잇고 反射로 航空機에서 地上物을 攻擊할수잇는것이다

科學雜錄

「리리엔탈」航空協創立

世界最初의 『그라이더』파이롯트인『리리엔탈』을 記念하려고 六月十二日 伯林에『리리엔탈』航空研究協會의 創立總會가 盛大히 擧行되엿는데 臨席의 航空大臣『미르히』將軍은 『리리엔탈』의 功績을稱讚하고 이協會는 會員一致하야 獨逸의 航空 防空의 助成에 全力을 다해야할것이라는것을 高唱하엿다。

「노르만듸-」號의不時危禍

六月二十二日發 巴里發電에依하면 同日 佛蘭西의 巨艦『노르만듸-』號는『로-하-부로』에 向하야 航海中『와이트』島의 近海에 이르럿슬때 마침 上空을 飛行中이든 英國軍用 爆擊機가 고장이생겨서 同艦에 向하야 不着을 試햇는데 『마스트』에 衝突되여 前甲板에 墜落하야 산산이 부서젓다。그러나 搭乘의 將校는 微傷도 當치안코 紛碎된 破片中에서 뒤여나와 물러든 船客들에『남우 騷擾스럽게 하여서 매우未安합니다』라고 謝過한데對해서는 모다 啞然하엿다고한다

絢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찰트」

【바이올린】 一、「콘체르토」(G長調)—第一樂章—「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푸짐한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移民文學의 過去와 現在

② 韓植

그리하야 一一히 枚擧할수업는 文學者들이『露西亞』의 가장豐富한 作家들은 다가리 追放의 經驗을 가지고잇다』라고할수잇스니 그어느나라의 例보담도 가장數多하고 猛烈한것이엇다 勿論그러나 엇던

(意味) 에잇서는 一二三人의例를除外하고는 西伯利亞는 結局本土이니까 追放이라든가 따라서 移民文學 이라는 『카테고리』에들지안는다고도말할수가 잇슬지는 모르나 나의생각에는 그當時의、西伯利亞는 他國과조곰도 다를이업는것과따라서 文字그대로 苛酷하게追放당한그들 文學者들에게는 實로 『死의瞬間』이엇다는事實과、또 追放당한 그들의生活에잇서서 또本國과의 連絡한 形式 內容等에잇서서 移民文學과 追放文學들은 先驅를맨드는것이라고 할수잇스리라고 짐작한다。西伯利亞에의追放은 事實上은外國에追放하기보담 더욱苛酷하엿든것이니、그맘에 追放당한後에도또 衆하야 監禁당하엿든事情으로 例컨대『도스토이엡흐스키』가『가롤 作家는 一行의文도쓸수가업든處地에 잇든것이다。그리나 外國에 亡命하엿든『게르쪤』은 間斷업시 그의文學的才能을發揮하며 여러가지의 新聞을發行하야 本國에 잇서서와가티큰存在와 힘이되엿든것이니어김업시 移民文學의가장

(優秀) 한作品을 産出하엿든것이라고하겟다。그러나 이어느便을 勿論하고 그들을 이追放、流謫、亡命당하엿든것은 勿論이며 또그러한 運命에도不拘하고 始終一貫으로 그當時의 支配階級에對한 熱烈한 反抗的內容을 못까지 文學作品에다表示하엿스며 또『바이론』、『하이네』、『유-고-』、或은 今日나-치스獨逸에서부터 亡命한作家들과 맛찬가지로 모-다 盛名노픈 偉大한 文學者엿든으로써 그들의文學的生命이 업서지지안흔뿐더러오히려 그들의 文學的 影響을더욱노피하엿다는 點에서는 同一한것이다。

그다음 우리는名實相伴한 偉大한 文學者로서 追放당하고、過去에잇서서의 移民文學의巨匠佛蘭西에 잇서서의 代表的인사람으로 『빅톨·유-고-』를 들수가잇는것이다。千八百五十一年末에『루이·나포레온』의 武斷 政治가 始作되고부터는 그에反對하는 『유-고-』의목(首)에는 賞金이걸리게되야 共和政治의 思想을가젓다는 名目아래에서 探偵으로부터

(日夜) 로追跡당하고 잇섯든 것이다。만흔犧牲의 피가흐르는 街頭를 헤엄쳐서잘 곳업시 終日彷徨하면서 다라단 脫出하야 白耳義의首都 부랏셀에 逃亡하여 以來로 十九年동안의亡命生活이 始作되엿다。그 사이에도 그는不斷히 『루이·나포레온』에 對하야 反抗의소리를 놉흔 것이니 小說、詩、評論으로 모든그의 文學的才能을 기우려서 創作의 붓을 들던 것이다 그의光輝잇는努作은 거의이 亡命時代의産出이니 實로 저 이름노픈『레·미제라블』은 이亡命地에서 出版되야 本國以外의 歐洲의 七國國語로 飜譯되여 同時에 刊行되엿든 것이다。로시아의 『짤쨩』과獨逸의 『하이네』와佛國의 『유-고-』는 追放당한 作家가운데 잇서서도 가장名聲이 놉고 移民文學으로서 가장훌륭한 傑作을 創作하엿든意味에잇서서 移民文學의 過去에 잇서서 조흔『본보기』엿다고 나는생각한다。千八百十五年부터 三十二年에이르기까지의 佛蘭西社會의 가장 悲慘한사람들(悲慘한사람들)의、呻吟의소리이며 그들을 맨드러낸

(社會) 의缺陷을指摘한 一大敍事詩인이小說의 序頭에잇서서『유-고-』는다음과가티 말하엿스니 그것은곳 移民文學으로써의 그의內容을말하는것이며 또그리게때문에 어데한데 미제라블한 社會的性質이 繼續되는限에잇서서는 이 敍事詩의運命에 따라서 移民文學의生命도 永遠히잇스리라고 「法律과 風習으로써 永劫의 社會的處罰이 存在하고 그리하야 人爲的으로 地獄을 文明의한가운데에 맨드러 天과 鐵의 運命을 世俗的因果로因하야 紛糾하게하는동안에는─卽下層階級에잇는男子의失墜、饑饉으로因한女子의墮落、暗黑한生活로因한어린아이들의委縮、이와가튼時代의世間問題가解決되지안는사이에는─即 어떤方面으로부터 社會的窒息을

(可能) 케하는사이에는──卽말을 밧궈하면 또다욱한 廣大한見地로서 말하자면 이地上에서 無知와悲慘이잇는동안에는 이書과가튼性質의書冊도無益한것이아닐것이다。」

나의關心事

改良住宅

徐光霽

住宅이라는것은 自己가 닙고 단이는 衣服과 가티 마음에 마저야하며 所用에 닷도록되여야 할것인데 不平을말할수업는 사람이 都市의 大部分이며 셋사 自己집에 돈이잇서서 집을 새로짓는다 하드라도 좋은 父母는 주추도 다지기前부터 座向을 보아야한다 어드로 門을 내면 福이 나가고 부엌門이 압 大門과 마주나면 부엌에서 늘 밥을 푸기때문에 발추겨어 大門을 向해서 작고 나가서 집의 財産이 준다는等 老人은 老人의 고집을 세고 子息은 그래도 이왕 집을 새로 집내면 日光과 空氣가 잘 드러오게 窓을 만히내고 應接室도 만들고 書齋도 잇서야 한다고 고집을 세워 요사히 새로 지흔 朝鮮집은 엄간式이 만타。그러나 나는 요사히 장마끄테 무엇보담도 朝鮮집의 덧門인데 그것을 窓戶紙로 발너서 비가 좀 드리치면 얼누기가지고 껍헛케써고하야 새집일수록 더 보기실흐며 그것을 철마다 새로 가라붓치자니 여간공이아니다 그래서 그덧門을 집어치고 유리窓으로 덧門을하고門에다휘쟝키를 칠하엿든이 보기에도 산뜻하고 비가드리처도 아모일업스나 갓금 老人들이와서보고『病院집갓다』는데는 질색이다。

×××

讀者交欄

◀小生은 地方某高普를卒業하고 지금上京하여 受驗準備를하려고하옵는대 圖書館에서約卄分以內에갈수잇는데의下宿에 獨房할房이잇스면 本社交室欄을通하여通知하여주시면 곳訪問하겟습니다 受驗生

◀金炳龍에게! 참感謝햇습니다 日前生의片紙는 接受하엿는지궁금합니다。社交室欄을 利用한先生에記事는拜見하엿습니다 三千里江山到處書家諸氏가 그만한程度力과 指導心이잇다면 얼마나반가운消息일까요? 今般先生의意義에는 讀者된生으로는 무엇이라고感謝의 뜻을表할지 모르겟습니다。이러한先生이만흐시면 朝鮮에文盲도打開되것지요? 江原 高憲生

◀懇願! 特히 雄基、土里諸氏에 約五六年前 雄基地方에서 威北西水羅地方으로 來往한 孫方彦 분은 本社交室로나 左記住所로 敎示하야주시면 厚禮하겟습니다 其氏의年齡은 今年六十五六歲可量이며 西水羅、土里、雄基等地에서 漁業金太를하엿다합니다 通信하여주시면 감사하겟슴니다 奉天工業區三馬路北三衛六號 東和洋行內 國生

◀倉農鮮竹松兄 少年小說集을 엇지되엿나요? 兄의 미-포바른 後 나는生活上크나큰苦痛으로 消息도못드렷나이다 나는 現在京城府[illegible]

◀年齡三十歲以上으로 中等學校卒業한이로 敎員生活에 經驗잇는家庭敎員一人을 採用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 左記住所로通知하시면 詳細한것은 相議하겟습니다 全北金堤郡金堤邑新豊里 趙在斌

◀求婚=二十八歲의男子이온대 過去에難關을突破한 廿二、三歲의 再婚女性일지라도 精神的으로 家庭生活에突進하랴하는분을 求하오니 게시면書面으로 問議하야주심을바라나이다 沙里院邑 日米商會 李里

◀市內某專門文科生으로 普校나高普生의 家庭敎師希望者가有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 通知하시면 本人을參上相議케하겟나이다 京城府平町七〇 李明輝

◀車忠燮兄에게! 平安하시겟지요? 弟는放學이되어歸鄕하엿습니다 片紙할때에는꼭住所를써주기를바랍니다 꼭住所를알려주십시요 宣川 張信堯

◀一、轉地修養目的으로 高眞衛을學得할分이게시면 本人의機械로써 敎授하겟습니다 有意하신분은 一家問議하시요 一、全

◀年齡三十歲以上으로 中等學校卒業한이로 敎員生活에 經驗잇는家庭敎員一人을 採用코저하오니 [illegible] 咸南旺場驛前 安厚玉

◀成興잇는이들에게 念生합니다 咸南山(百坤) 本人의子息이 八月十七日낫에東明劇場附近에서『榮賓指定第五回卒業記念메달』을 紛失하엿는데拾得하신분은 左記住所로 보내주시면 薄謝를 進呈하겟나이다。但其形은 矩形 銅製銀點

◀尋人 滿天下先生任이시여至今으로부터三十年前에 京城府武華關紅門洞서 四歲된金漢福男兒가失家하여 死生存亡을모르와晝夜哀痛하는兄과母가有하오니 萬一生存長成하엿스면 어現住所로 知하여주시기를바라나이다 (長湍郡津南面江井里金漢龍方)通 慶北[illegible]

◀生은多年間觀相과 四柱에自習研究하야 人의平生吉凶禍福을 判斷하오니 四海에朝鮮日報讀者諸氏는社交欄又는 左記住所로通寄하시면 百問百答을 하옵나이다 現住所忽德郡江口港 石文圭

◀岩泉兄이여 住所를暫時나朝鮮日報貴한紙面을빌어 묻는말이잇노라 늙은父母가每日저지근심하심을알며 네에아페 울고생을기억하여라 속속히歸家하여 本名은高眞永계 늙은父母 晩秋

◀讀者中에 『月刊野談』創刊號와同二號를가지신분이게시면 그의該當한冊價、또는다른新刊雜誌와 交換하고자하오니 通報하심을敬要하나이다 冷泉町七一 [illegible]

◀大阪○慶生의계중합 [illegible] 大門町二丁目一ノ五號에와잇사오니 消息을傳해주구려 [illegible]

新刊紹介

◀朝鮮文學 九月號(內容) 創作 春夢 外數篇 詩 金尙鎔外諸氏 [illegible] 朝鮮文學의槪念規定에伴하는感 隨筆 七月創作評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苑西町一六二 朝鮮文學社 振替京城二四五八八番 定價三十錢

◀靑年大衆 九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二四 日本靑年文化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 定價十錢

◀新光 九月號 新浪日記 高裕[illegible] 名作上의가장[illegible] 外諸氏 [illegible] 金石松 西班牙政局의今後動向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定價三十錢 送料 振替京城五五七七

◀朝鮮農道協會誌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古市町一四의一二 朝鮮農道協會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一、文學靑年會同集(京[illegible])

二、白夜(書籍[illegible]) 市內某誌 靑春生

◀社交室案通하야 讀者諸氏게 問議합니다 下記書籍 實驗하실분 게시오면 本欄에 價格과住所를 알려주시오

連載野談

布囊記 (三)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선의잇는편에 (三)

제후소저가 백옥국선을 만나 생시간 경성으로 가슴에 품친 마음을 깁히 부탁하고 돌라와스나 암만이 어찌될지 심사가 자연 산란하야 한참도 잇추지 못하고 돈눈으로 그밤을 그대로 밝혓다.

밝는날 아츰에 미리미리 정돈하야 두엇든 행구를 소에게 말에게 내실리고 무진을 향하야 떠나게되엇다。

이때 제후소저는 머리에는자주빗 비단바탕에 아롱빗 구실로서 꾸민 화관(花冠)을 쓰고 몸에는 스물여덟새 푸른비단으로 맨든 큰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은사(金銀絲)바탕에 비취(翡翠)를 박은 띄(帶)를 띄고 발에는 거문가죽신을 신노두에

하는 무리를 헤치면서 길을떠날제 머리는 상어배빗(牙靑色)과 주석비녀(朱簪)로서 꾸미고 몸에는 분홍비단 큰옷에 남빗비단 띄를띤 스물여섯 하님(女子)이 수레 좌우를 호위하고 또한 머리에는 거문비단복을 쓰고 몸에는 푸른빗전복 허리에는 구리띄 손에는 칼자루가 섯자섯치되는 월도(月刀)를 단단히 쥐인 군사가 전후로 갈러서서 압길을 벽제(辟除)하며 돈을 단 배와가티 달러가니 그귀구의 장한법이 과연 제상의 만날이오 태수의 정실(正室) 행차인것이 분명하엿다。

제후소저가 이럿듯 굉장한 구로서 떠나것만 그마음은 어전지 서운하하야 심사가 산란한

칠향나무(沈香木)바탕에 금과、옥패소은과 구실을 너허 꾸민 대모(玳瑁)라간과 자주빗 비단으로 엄기를하고 록피(鹿皮) 경첩을 설룬여섯명이 끄는 채색(彩色) 수레우에 올으니 진실로 그 으리으리한 자태가 천상(天上)선녀(仙女) 인듯 하얏다。

『원통한일、원통한일!』 백옥국선이 어찌다 두눈이 멀어가지고 저런 선녀와가튼 아가씨를 빼기여。원통하지、원통해。무진리태수가 얼마나 잘생기엇는지는 모르지만 저아가씨가 백옥국선과 원앙의 한짱이 되엇든들 오직이나 조왓스리。에이。못할일。귀신도 남못할일을 너머햇지。』

하며 길좌우에서 구경하든 여러 녀자들이 서로 짓거릴새 그중에는 백옥국선을 더 불상히 생각하야

『아이。저 아가씨야 이럿를、저렇틍。시집가면 잘사겟지만은 눈먼 백옥국선이 불상하지。새별가튼 두눈은 멀고선녀가튼 새악씨는 배앗기니 불상하지 불상해。』

하며 백옥국선의 신세를 불상히 생각하야 우는녀자도 적지 아니하얏다。

제후소저가 이럿듯 화려한치장으로서 재색수레를 라고 좌우에 구름가튼 모힌서서 구경하는중 수레 네귀에 달린 옥패소리가 교군군의 거름을 마처서 청아히 들릴적 마다 두눈에서 흐르든 눈물을 금치 못하며

『내 이길이 어인길인고。팔자소관은 면치못하는것。내이길이야 잘가든 못가든 백옥국선께서는 내부탁을 어이하시는고。만일 백옥국선이 내부탁을 잘못 행하야 세상에 로가 되다하면 이몸은 두번 붉그러움을 당하게되는것。그러케 되다면 백옥국선에게대한 사랑의 신의는 죽엄으로써 갑흘것 밧게 다른 도리가 업는것。』

하며 백옥국선에게 부탁한일이 뜻과가티 잘되려는가 잘못되려는가 그여부를 크게 염려하기를 마지아니하엿다。

그런데 백옥국선은 제후소저가 작별하고 물러간뒤에 즉시 김천(金川)을 불렀다。

그리고 김천의 귀에 입을대고 제후소저의 부탁을 저저히 설파하엿다。

김천은 백옥국선의 말을듯자 크게 기뻐하야 날뛰며 거룩한 것은 말을 구하얏다。

이에 백옥국선은 김천으로하야금 말몰이를 쥐이게하고 그 밤으로 집을 떠나 역시 무진을 향하얏다。

그런데 백옥국선은 제후소저의 부탁과가티 나지면 주막에 들어 몸을 쉬고 밤이면 말을 모라 길을 거럿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여러사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것이엇다。

『아이。그자 이내거롱。내가 봉사 도적이 아니어늘 이밤길이 웬일인고。제후소저의 부탁이 아니러면 내비록 눈은 멀엇슬망정。이런 구차한 거름은 아니거릇걸。』

하며 백옥국선은 갑수록 뜻밧 눈먼 죄이것을 다시금 슬퍼하얏다。

藝苑消息

朝鮮演協移轉

며칠前에 創立된 朝鮮演劇協會에서는 그동안 臨時事務所를 安國町九六에 두어덧든바 지난二十五日부터 市內敦義町一三二番地로 移轉하얏다고한다。

라듸오

二十九日(土曜)

◇午後六時三○分 唱歌劇『장안드는과시씨』全一景 —太成均作— —配役— 文齋……韓貞淑 景龍……(그의동생)……金順伊 이웃하젓씨……徐靜波 醫師……崔淳根 其他多數 버들피리會 指揮 太成均
◇同七時 週間時事 東亞日報 高永煥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分 歌曲 一、羽調 二、牛樂 三、弄 四、界樂 五、編 盧錦桃 明柱完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古談 靑鳥 金灌雲
◇同九時三○分 十杖歌 外一 十杖歌 二、赤壁歌 三、春香 四、휘모리 柳開東 全光泰

第一放送
◇午後六時(東)노래공부 단道子
◇同六時二○分(能)講座 鈴木登
◇同七時三○分(大)어린이와가정의저녁 一、唱歌 大阪放送合唱團 二、이야기 村瀨幸子 三、바이올린獨奏 遠藤瞳星子 四、獨唱 木村美佐子 五、라듸오드라마 蝶蝶座 六、管絃樂 大阪오케스트라
◇同八時三○分 라듸오·드라마

三十日(日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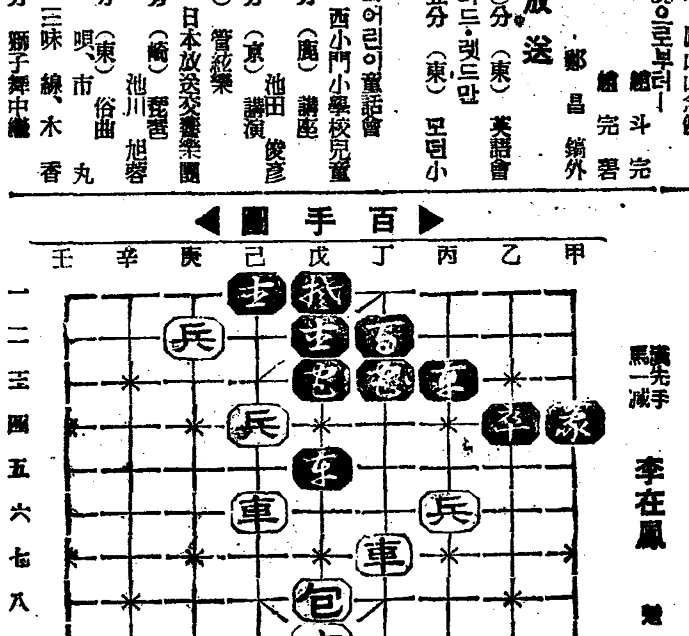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門鐵對遞信』『門鐵對全京城』—京城運動場으로부터—
◇同六時三○分 童話 忠信學院生徒 伴奏 金龍僕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盧基南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가)短歌 竹杖芒鞋 (나)唱劇調 春香歌 鼓手 池龍九 丁南希
◇同八時三○分 音律『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앞山打令 一、앞산타령 二、뒷산타령 三、경발림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山念佛 金順紅 金振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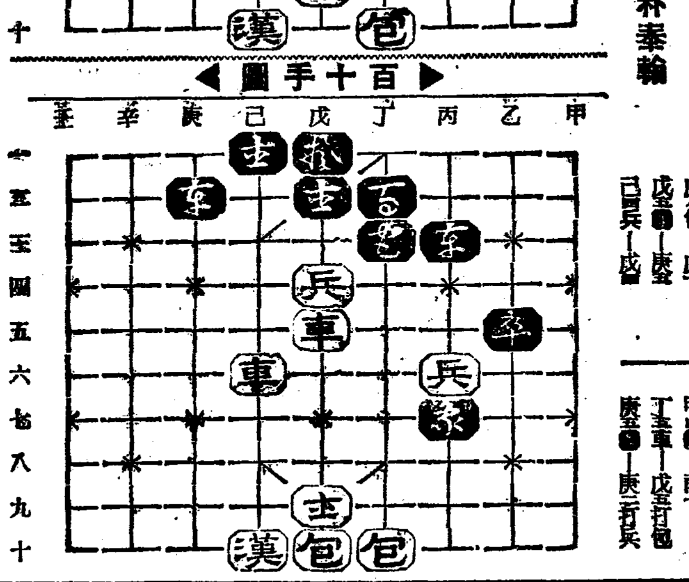
第一放送
◇同九時三○分 映畫이야기『파시만불때』 成東鎬
◇午前六時三○分 農村講座 植木秀幹
◇九時三○分 (東)노래공부 단道子
◇午後一時二○分 (東) 新日本音樂
◇同一時五○分 音樂

第一放送 鄭昌鎬 外
◇午前六時三○分 (東) 英語會話講座 하바드·렛드만
◇午後零時○五分 (東) 모리小唄
◇同六時 DK어린이童話會 西小門小學校兒童
◇同六時二五分 (廣) 講座
◇同七時三○分 (京) 講演 池田俊彦
◇同八時 (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分 (兪) 琵琶 池川旭峯
◇同八時五五分 (東) 俗曲 唄、市丸 三味線、木香
◇同九時一○分 獅子舞中繼
◇同九時十分 탈춤과獅子춤 —黃海道沙里院景岩山으로부터 全國中繼……
◇同九時卅分 鳳山民謠 一、東軍의갑내기 二、農軍방아타령 三、農軍들맞드는소리 五、鳳山긴난봉가 六、鳳山山念佛 —沙里院으로부터— 鄭斗完 鄭完君
◇同八時三○分 靑年講座法要 一、伏請偈 二、擧佛 三、由致 四、多羅尼 五、目連經 和請 由致淸詞 金世峰 梵音 梵唄和淸 李璟 鼓 打鉦法鼓 李仁相 胡笛林 元植
◇同八時 〃南朝鮮水害에對하야〃 總督府社會課長 金大羽
◇同七時 講演 〃二百十日과農家의注意〃 第二高普 金遂珏
◇同六時五五分 兒童童謠 培材高普 金啟植
◇同六時三○分 이야기 하─모니카 宋一九 기─다 李興培 아코─듸온 金波鳳
◇同七時三○分 (大)日曜뉴─스
◇同八時 (東)새이야기 田中末吉
◇同八時二○分 (東)演藝 漫才 高橋美喜子
◇同八時四五分 (東)라듸오·드라마 作及演出 岡鬼太郎

三十一日(月曜)

◇午後零時五分 輕音樂 一、映畫主題歌 山의人氣者 二、집시의탄…山田榮一作曲 三、波蘭넘어서…로─자스作曲 四、빨가마─치…露西亞民謠五、스케이터스·월쓰…발드토이펠作曲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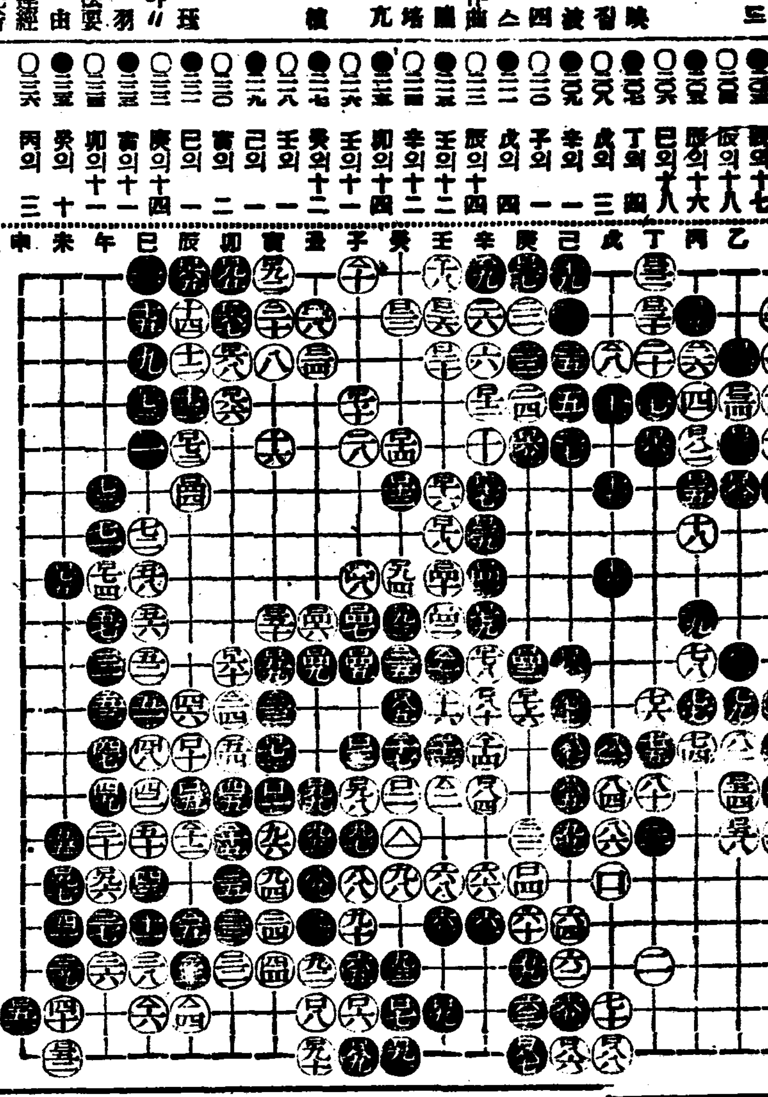
漢先手 李在鳳 楚 朴奉翰

百手圖 百十手圖

丁五車—丁九 乙四包—乙五 戊七包—戊八 己四兵—戊四
戊三象—戊六 丁八車—丁五 甲四卒—丙七 丁五車—戊三包 庚二象—庚二兵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3—

白 蔡極文 黑先 丁奎泰



●一一三 甲의十七 ○一一四 乙의十八 ●一一五 丙의十六 ○一一六 巳의十八 ●一一七 丁의四 ○一一八 戊의三 ●一一九 辛의一 ○一二〇 子의一 ●一二一 戊의四 ○一二二 辰의十四 ●一二三 壬의十二 ○一二四 辛의十二 ●一二五 卯의十四 ○一二六 壬의十一 ●一二七 癸의十二 ○一二八 壬의一 ●一二九 己의一 ○一三〇 寅의二 ●一三一 巳의一 ○一三二 庚의十四 ●一三三 寅의十一 ○一三四 卯의十一 ●一三五 癸의十 ○一三六 丙의三

▲對局者談 白은 寅卯七八區에 勢力延長과 乙丙十六七耳角이 完保됨으로 優勢가 確定되고 黑은 午未申沿邊耳角과 丁戊己七八區가 亦是完備하엿스되 丙의二線點失着으로 不及인가하노라

白 蔡極文 白六十六目
黑 丁奎泰 黑五十八目
白八目勝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畵科(四君子를包含함)
西洋畵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贈呈함)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二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廿七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廿八日至九月三十日(驛文局을經由하야 搬入할時는 二十九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裏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名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을明記하야 本社又는 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 要項을閱覽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月經不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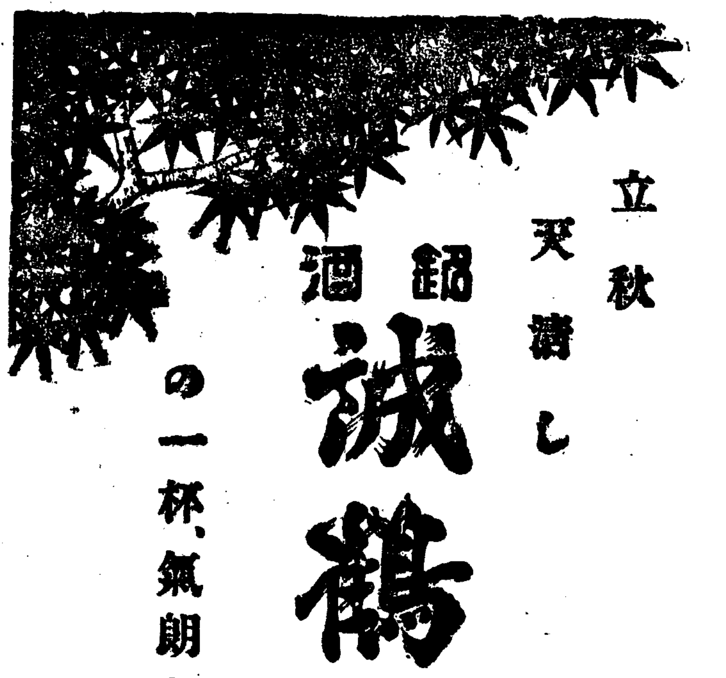
卵巢實質ホルモン
オオホルミン (오오호루민)

月經寡少、卵巢機能障害
結婚期前後의神經障害
特히、四·五十歲前後 에는때…
下腹痛、腰痛、頭痛、心悸亢進、盜汗、上氣、肥滿症、眩氣、肩胛痛 其他生殖腺호르몬不足減退에基因한 諸症患에奏效한다

오오호루민은卵巢實質호르몬製劑로서卵巢호르몬의分泌不足減退、缺乏等에由來하는神經系生殖器系等全身的諸症에應用된다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本町 小西新兵衛商店
製造元 帝國社臟器藥研究所

콜럼비아 特作品 流行歌
물새야 왜우느냐 蔡奎燁
달빛어린 沙漠
荒野에 해가저무러 姜弘植
新農夫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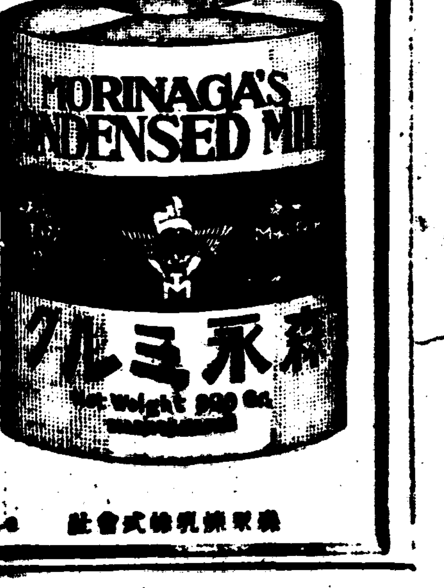
醸造元 灘 鹽見酒造場

榮養에 わかもと (와가모도)
諸榮養素、特히 호르몬의 … 本邦唯一의 純正 …

宿醉 로머리가무겁고、가슴이답답하고、口中이텁텁할때에는
ノーシン (노─신)
宴會에는 必히 準備하야두시오

森永ミルク

誠實으로 製造하므로 榮養은理想的、비타민이豐富
賣行迅速 恒常 新鮮한것을 어들수가 잇습니다



森永煉乳株式會社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二三五番
現代名篇 舞姬の層 佐佐木康氏監督
松竹浦田特作品(發聲版) 『本鄕秀雄』『水島光子』 上山草人氏共演
總天然色 弓矢… RKO社超特作品全發聲日本版 ト─プ、핫트(トップハット) 性格名優 프레드아스테아氏 진자─로─쟈스 孃主演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番
八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大公演 天下無比의名畵로上映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正午二十二時부터六時까지晝映
次週 九月二日 魔像 ばらならば
千代田勝太郞主 新月深川祭
白石明子·松本泰輔·池飮子 田斐世津子助演
立松晃·江川なほみ·淸水將夫助演
新興キネマ京都超特作 原作 巽龍吉
新興キネマ大衆超發聲映畫 大阪朝日新聞連載小說 聖處女
第一回 午前十一時四十分 第二回 午後二時二十五分 夜之部同七時ヨリ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本夏二十八日부터大公演
◇朴英泰作 生活劇 上海悲歌 全二幕
◇林仙圭 會心力作 時代劇 結婚春歌 全一幕
◇金白雲案 喜劇 오 라 이 全一幕
次週 死線에서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二三五番
大人五○ 學生小人三○ P·C·L映畫と高級洋畫
二十七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入替ナシ
アンナ·カレニナ グレタ·ガルボ主演
キャバレーの鍵穴 ジョーン·ペーナー主演
あるぷす大將 伊達 主演
大日本每日大日本每日 第七報

南北各地의 水亂慘禍

全南

全南道에 颱風一過 人命死傷이 多數

羅州서 만 卅三名이 行方不明

詳細被害는 調査中

【光州】 루-사일여를계속하야나린비는 이십칠일오후네시부터 폭풍우로 변하야 전남각지를습격하야 여명에이르기까지 계속한우량이 장흥(長興)의 일백칠십미리를 필두로 광주(光州)일백륙십미리등으로 십수년내에 처음보는 폭우이며 그피해가 전도를 통하야 자못막대하다는바 아즉조사중에 잇슴으로 그피해의 정도는 자세히알수업고 편편의 보고와조사에 나타난것을 볼진대 매번수해가 잇슬적마다 피해가 극심한 라주(羅州)군일대를 중심으로 소위전남평야(全南平野)인 영산강(榮山江)유역은 수국화하고 마랏스며 동군에서만 행방불명자가 삼십삼명이라는대 영산강의 증수는 이십팔일오전구시현재 팔미돌상십삼으로서 속속증수를하고 잇스며 순천(順天)은 순천역일대를 제외하고 전부가 침수되엿다한다 그리하야 피난민을 순천군청에다 수용하야 응급구조를 한다고한다

光州府內家屋被害

浸水가 一千餘戶

錦町、楊林町、昭和町、本町尤甚

流失家屋도 卅餘戶

전기와가를 폭풍우로인하야 광주부내서도 조선인이 주밀하게 거주하고잇는 금정、양림정、소화정、동정、북정、류정(錦町、楊林町、昭和町、東町、北町、榮町)등이 침수가되고 또한 류실가옥이 잇고하얏는데 침수가옥수는 약천호가량이 되며 류실가옥은 삼십여호이라하며 아즉 인명의사상은 판명되지안엇다하며 전기각정에 수해가심한 원인은 지대가 나즌관계도잇스나 주요원인은 하수도의설비가 전무하며 또한 도로가정비되지못하야 그와가티 침수의피해가 심하엿다는데 소화정부락민과 동정부락들은 수로(水路)를 막는이 못만는이하야 일시는 폭풍우따라 야밤에 수백명이대처하고잇서 형세가자못험악하얏섯다

數百餘避難民은

吳元記念閣에 收容

本支局과 基靑會活動

광주부내서도 제일피해가 극심한 금정(錦町)과 양림정(楊林町)일대의 피란민 오백여명을 응급수단으로 양림오원기렴각(楊林吳元記念閣)에 수용하고 본보지국 구호반(本報支局救護班)원과 광주기독교청년회(光州基督敎靑年會)원의 구조와 정락교(鄭洛敎)씨댁에서는 밥을지어 주는등 피란민들에게는 적지안흔위안을밧게되얏다는바 본지국활동반은 소화정 류정 북정(昭和町、榮町、北町)등의 위급을 전하는처소에서 폭풍우를 무릅쓰고철야활동을 하엿다한다

全南各地의 雨量

最高二百餘미리

【光州】 한달이상을 장마로서게속되든 전남일대에는 이십칠일부터 폭풍우로 변하야 피해가 만타함은 별항과갓거니와 이십칠일과 이십팔일의 량일간에 도내각지우량은 다음과갓다한다 ▲木浦 二二九미리 ▲光州 一六○미리 ▲[illegible] 一六一미리 ▲谷城 二三六미리 ▲求禮 一七一미리 ▲光山 二二○미리 ▲麗水 不明 ▲順天 二二○미리 ▲高興 一九七미리 ▲寶城 二二○미리 ▲和順 一六二미리 ▲長興 二一七미리 ▲康津 二三六미리 ▲海南 二一六미리 ▲靈岩 二三八미리 ▲羅州 一四六미리 ▲咸平 一六○미리 ▲靈光 一九○미리 ▲長城 二○一미리 ▲莞島 不明 ▲珍島 一七三미리 ▲濟州 不明

三鄕地方에도

農作被害莫大

【三鄕】 이삼일전부터 남조선연안에 태풍의 적신호(赤信號)가 잇게되자 일반은 자못 불안에싸여잇든바 과연! 지난 이십칠일 오후네시경에 닥여드러오다

長興邑內에서는 四名의屍體發見

十餘名아직行方不明

【光州】 이십칠일내의 폭풍우습래로인하야 장흥(長興)읍내는수국화하얏다는데 구시장(舊市場)에거주하는 십여호가 류실하게되야 주민십여명이격랑에휩쓸렷는대 수방단급경관의 조력을바다 그중십칠명만은 구출되얏는바 그외십삼명은 행방불명이며 사명의시체까지 발견되얏다는데 부모는 자식을 찻는소리 어린아동은 부모를찻는소리가 처량하다한다

全南道土木被害

豫想百七十萬圓?

【光州支局】 금번폭풍우로인하야 전남도내도로관계피해가 막대하다는바 그피해의자세한 수자는 아즉알수업스나 그복구예산액을 볼진대 일로 일백칠십여만원을 요하리라하며 전신전화의 불통으로 각지피해의보고를알수업스나 전남평야(全南平野)인영산강유역의 침수는 이십팔일오후두시까지의것이 다음과갓다는데 그 피해액역시 일백오십만원에달한다한다

▲榮山江流岸浸水面積

▲水稻 三、八○○町

▲畑 七二○町

▲ 四、五二○町

關北庭球大會

雨天關係로延期

【元山】 원산천주교청년회주최와 본사원산지국후원의 제이회관북개인정구대회는 금월이십구、삼십량일간 원산해성보통학교코-트에서 개최키로되엿스나 연일계속한 호우때문에 오는구월오、륙량일오후한시로연긔하얏다는데 신청은 대회전날까지 다음장소에 신입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申請場所-元山天主敎靑年會 명덕구리商店 文化書院 本社元山支局

東海北部列車

歙谷以南不通

【元山】 원산철도사무소의 발표에 의하면 이십칠일밤부터 퍼부어오는 호우로 인하야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은 선로의 침수와 수개소의 파손처가 생겨 흡곡(歙谷)이남은 운전을 못하게되여 겨우 원산─흡곡간을 운전한다는데 선로는 전중이며 방금 복구중이므로 곳 개통되리라고한다

元山府內에만도

浸水近五百戶

人畜의被害는幸無

咸南

【元山】 원산지방은 지난이십오일부터호우가쭉주하야오는데 이십팔일아침까지에 이백사십팔미리나왓다 이러케만흔비가 왓기때문에 이십팔일에는 원산에서도 가장 지반이낫고 또한가장 하수구의 배설작용이 저열한 원산리방면인 본정오정목 명석동 상동 중리 산제동 교하동 망석동 룡동 신흥동 남촌동등지에는 침수가옥이 사오백호에 달하는데 다행히 인축의 피해는 업고 다만 반도괴가옥이 삼사호가 잇섯슬뿐이다 그런데 원산의 침수는 모다 전기한바와가티 하수구(下水溝)의 불완전으로 갑작이 물이 배수가 안되여 집으로 들어간것으로 일시는 일대가 수국화하야 교통이 중지되는일까지 잇섯다 그러나 물은 오후한시에 이르러 모다 감수되어 별일은 업섯다고한다

工費八萬餘圓의

産業獎勵館新築

【全州】 오래동안숙망중에 잇든 전북"산업장려관"은 총공비팔만여원으로 구월초순경에는 신축수하리라고한다

安邊에 大暴風雨

家屋浸水、橋梁破壞、交通杜絶

農作物의 被害도 莫大

【安邊】 함남안변지방에는 한참 이앙기(移秧期)에다다라 삼이적 한발로 말미암아 흉가난을 만히바다슬뿐아니라 저수위(貯水位)오십여처의 저수지를 가지고 금년전답을 자랑하든 안변수리조합에서까지 저수지고갈로 인하야 일시단수까지되게되여 상을매우 소란케하얏스나 간관개(灌漑)등방법으로 차워가면서 구할이상이나 이앙해 노흔터에 그후다행이 풍조한관계로 안변은 풍작을 상하여오든터인데 지난이십오일아침부터 내리기시작한비는 끈칠줄모르고 계속하더니 이십칠일부터는 폭풍우로변하야 하로밤 동안에 비이십미리나 내린까닭에 도로와 교량의파손은 물론 침수가옥이 백여호에 달하얏고 일반 농작물은 바람에 넘어지고 물에잠기여 상세한수자는 알수업스나 [illegible] 자방(自防)[illegible]의 대평야도 전면이 대소의 바다로 변하고 마랏는데 마츰 발수(發穗)시긔인만큼 그피해의 정도는 말할수업시클뿐아니라 이외에 대중류의 가작(稼作)을 북거든 이곳농가의 심적의 처참한 계상은 형언할수업시되고 마랏다한다 [illegible] 동안에 여지업시 유린을 당하고마럿는대 오후여섯시경부터는 갑작이도 수가 심하여지면서 시내는 정전(停電)까지되엇고 지척을 분간할수가 업시된 철야(徹夜)에 쏘아드려오는 폭풍우로 집거와시장이 파괴되며 곳곳에서 공사 수라장 [illegible] 수업시되고 마랏다한다

는 풍수로 [illegible] 하엿스나 피해정도는 상당하야 [illegible]

[illegible] 흡곡(歙谷)간 [illegible] 청천(淸川)간 송전(松田) 고저(庫底)간의 교량(外浦) 고성(高城)간에 선로가 류실도괴되엿는데 이십팔일아침부터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안변과 간성(杆城)간은 기차가 불통되고잇는형상이다

【[illegible]】 [illegible] 는 홍수후의 [illegible] 지난이십팔일오후 [illegible] 제강회 [illegible]

大淸津建設에 支障

細民部落을 整理

三千餘住民의生活根據가問題

膨脹淸津의 誕生苦

【淸津】 수성평야(輸城平野)를중심으로 방대한 계획을하고잇든 대청진도시계획도 이제 불원하야 공사에 착수하기로 되얏스므로 부당국에서는 얼마전부터 계획구역안에 거주하고잇는 세궁민부락 오백여호의 처치문제에 대하야 방침을 고려하여오든 중 이 삼천명의 세민들에 전부 퇴거명령을 나리기로 하엿다한다 퇴거명령을 밧고 장차 생활근거를 일케되야 삼천여명의 궁민들의 갈곳은 과연 어테인지 아직 국비에 부치고 말치안흔다나 구역외인 현재 부내중심지점으로부터 멀리십리나되는 어떤곳에 이만오천평가량의 토지를 구입하야 매호당십오평식을 대부하리라한다 이리하야 부와 거리에생활근거를갓게되는 이들 삼천주민은 멀니생활근거를 떠나게됨으로 로동의중대함에비추어 일반은 부당국의처사에 큰관심을가지고 사태의전개를주시하고잇다한다

全北

群山市內電線切斷

市街一帶暗黑化

倒壞家屋만도十數戶에達해

詳細狀況은調査中

【群山】 지난이십칠일정오경 태풍이가까워온다!는 전주측후소(全州測候所)로부터 경보(警報)가잇자 해상은 무론 륙지에서까지도 일반들은 조마심을가지고잇든차에 석양부터 바람이 솜솜불기시작하야 팔시경에는본격적으로 태풍이습래를하야 수십년식무근 「포뿌라나무」가 처처에서너머지는등 또한전선(電線)이곳곳에서 절단이되야 군산시내는 암흑화로변하야 버렷슴으로 일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중에 옹울한하루밤을지낸바 인축에는 별사상이업스나 도괴된가옥이 십수호로서 상세한피해는 방금조사중이라한다

연이십칠일오후칠시경부터 불기시작한바 계속하야나리는폭풍우속에 가구운반과 피란민들로 수라장이되엿다 동시시경에 시내에는 일면정전이되자 시내는 전부암흑세계화하야 대호자들은 우고잇는중 정등(鼎燈)의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시간을요하리라는데 전기회사의말을들은거대 리리(裡里)배전소(配電所)의 금번 태풍(颱風)과 폭풍우로인한사고 이라하며 암흑리(暗黑裏)에서 시내피란민들은 서로불으며 자식과 아버지 일대공포중에잇다

全州에 避難騷動

【全州】 전북 전주(全州)에서는 경보에경보를거듭하던태풍은 파

汽漁船廿隻沈沒

海上被害十萬圓

白米도二千石이沈沒

【群山】 강렬한태풍이 습래를 하자 해상에서는 위험을 고하는경적(警笛)이 사방에서 울려오는등 일시는 말로 다할수업스리만치 처참한광경을 이루엇섯든바 당야에 난파침몰된 배는 군산토목출장소(群山土木出張所)소속발동기선(發動機船)을 비롯하야 발동선이 두척 범선이 다섯척 어선이 십삼척 행방불명이 두척으로 전부 이십척인 동시에 침몰되얏이 백미가이천석으로 해상에서의 전손해액이 실로십수만원에 달한다고한다

松汀里一帶에도

數個里가水國化

發穗期의農作은全滅

【松汀】 호남선송정리(湖南線松汀里)에는지난이십칠일 오전 일서부터나리엿는 태풍폭우가습래하야 동이십팔일오전사시까지 계속하고잇는바 송정리 본정통일대에는 태풍에 한목과기와장과 간판등이모조리나려나 동행하지 못하엿스며 부상자도 다수하엿스며 폭우는계속하야 황룡(黃龍)극락(極樂) 양강연안은 수국화하야 일대소동을 일으키게되는 송정경찰관 수방단일동은 비상출동하야 태풍폭우를 무릅쓰고 구호에 맹활동중이나 점점 해수량증임으로 홍수속에 잠겨잇든 송정면 신야촌(新野村) 도산리(道山里)일동리는 구호대의손을 쓸수가업슴으로 피해정도는 미상인바 침수가옥이 약오십여호인듯하며 다행이 인명의피해는업는듯하다는바 광송선과 영광송정간자동차는 전부 불통이되엇스며 발수기에잇든 농작물은 아직도 홍수에 무처잇는것이 [illegible] 이상인바 [illegible] 농가에서는 [illegible]

數個勞働組를丸合

長箭勞働會創設

會員近千餘名의多數

【長箭】 지난 팔월이십륙일오후 두시부터 장전시내 어업조합회의실에서 발회식을 거행하엿다는데 장전의 [illegible] 장전로동조합과 어업조합전속 용인조합및 운송점전속 로동조합등을 통합하야 장전로동회가 탄생하엿는데 동시에 일반로동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집하야 로동임금 협정과 대우개선에 매우 심혈을 기하는데 [illegible] 동시에 우차조합과 [illegible] 하엿는바 [illegible] 어리공장전속인부와 일반선원(船員)을 망라하야 근천여명에달하는 당일오후다섯시에산회하엿다한다

孫、南兩選手

勇躍寫眞會

【新義州】 신의주체육회에서는 조선이나흔마라손왕 손긔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량군의 세게올림픽 성전(聖戰)의 마당에서 민족의 명예를위하야 용약(勇躍)하는장면을찍은 제십일회세게올림픽뉴-쓰속보를 삼십일밤 [illegible] 부내 신흥관(新興館)에서 공개하기로되엿다한다

衛生講演盛況

【海南】 해남청년회에서 광주민박사를 초청하야 위생강연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지난 팔월이십삼일밤 해남공회당에서는 비가나림도 불구하고 청중은 대만원을 이루엇다 정각이되자 주동흥(朱東興)씨의 위생에대한 간단한 사회로서시작이되여 동강연회는 성황을 정하고 십일시 원만히 못치고 [illegible] 어다과회까지잇섯다는바 동야연사와 연제는 아래와갓다

◇演題及演士

現代醫學에對하야 千金出(醫學博士)

衛生思想에對하야 閔丙冀(醫師)

新生에對하야 宋[illegible](醫師)

白蔘統制風에 刺戟

通信販賣業者蹶起

販賣權의保障을圖謀

【開城】 개성특산 백삼(白蔘)은 경작면에 도착제관으로 백삼통제사를 창립준비중에 잇다함은 루보한바이어니와 이것은 제조업삼업들이 [illegible] 삼업계의 공황화에 가장적절한 삼업조합(蔘業組合)의 [illegible] 것이다 그러나 이론제바람은 협탑중소상업가인 통신판매업자에게는 피폐과정의 [illegible] 그들은 [illegible] 대처죽구에 [illegible] 「어떠케하든 인삼판매업을 우리손에」 [illegible] 동해사에서 제조업상품전부를 [illegible] 판매하도록 하는것이 가장적당한 자주지책이라 하야 우선 오십만원의 재금으로 백삼판매주식회사를 조직하자고결의되엿다 그래서 [illegible] 도내에 분배경을 설치해서 재각가정역판권을 가지고 외래상인의 침해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배세가 공존공연의 방침을세우지안코 제조품전부를 [illegible] (白蔘統制會社)에서 [illegible] 손에넘겨버리게 된다면 군소상인가의 운명은 좌절되고 마는것이니 [illegible] 자못주시되는 다

生命線이떠러진

紹介業者와"居間"

念慮되는그들의生途

전긔한바와가티 군소상인들은 [illegible] 다 [illegible] 자 [illegible]

선의 운명에 즉면하게되엿다 말하자면 그들은 맹목이 될처로 추고백삼제조그에 수배원수입되든 버리를 하는것가티 및 고 녀롤내 시량을 외상내여먹고 잇든형편이 이번에 고만히 망이 좌절되여 한숨만짓고잇다 그래서 그들은 자긔네운명이좌우되는 지난 이십오일 삼업조합총회에 폭우를 무릅쓰고 오십여명이 사회관에 쇄도해와서 방청을 요구하엿스나 거절을당하고 말엇다

이룰제바람에 개성경제계는 대중유의 파문을 이르키고잇다 좌-통신판매업자들은 각지방거래처에 예약속수형만밧고 수천관씩 용매매한 수만원의 대금을어찌수봉할가하고 불안중에 잇스며 또는 삼주의 자인으로 [illegible] 소개자(紹介子)를 [illegible] [illegible]

咸北道內初等普校

一面一校制完成

今秋에三校開校로

【羅南】 오래동안 현안중에잇서 지지하게진첩을보지못하고잇든 함북도내의 일면일교제(一面一校制)도 오는구월에 새로히세학교가개교될을기다려 일면일교제는 완성되게된다는바 완성된후의수자는 학교수로 [illegible] 사백학급이로 삼만여명의생도를 수용할수잇게되야 학령아동취학률은 약 [illegible] 에 불과하다고한다

平康殺人事件

【平康】 [illegible] 에서 발생한 살인소동은 [illegible] 보도한바어니와 가해자 [illegible] (女)와 그아들 [illegible] 는 [illegible] 사국을 거처 [illegible] 송국되엿다고한다

道安分局後援의

全朝鮮脚戲戰

空前盛況裡終幕

【道安】 루보-본보도안분국후원과 도안소방조주최의 제일회전조선씨름대회는 [illegible] 고원(高原)도안시외 부전봉하 공설운동장에서 지난이십륙일오전 [illegible] 시에 각지선수들의 운집과 본사기(本社旗)를 선두로 입장식과 개회식이 못나자 삼등에선으로부터 수상제 건아(健兒)의 의긔를 마음것 힘것 뽐내게되엿다 금번대회는 명실공히 부전고원을죽로서 력사적대회인만큼 전조선각희선수권보지자 안도범(安道範)씨 현명동량(?)씨를 비롯 북청(北靑) 성진(城津)으로부터 함흥은 물론 남으로 원산(元山) 평양(平壤)등지에 이르기까지 구름가티 모혀든 수백용사와 응원단으로서 대회당일의 성황을 말하고잇섯다 특히 가두에는 대회를 축하하는 외곳(外燈)이 시가를 찬란하게 장식한중에 마라손용사 손、남(孫、南)량군의 [illegible] 까지도 진열되다 [illegible]

大田支局主催의

水害救濟演奏會中止

警察署의不許可로

【大田】 금번미증유의수재로 [illegible] 의사상자를내고 수만의동포는 먹을것 입을것 잠잘것을 빼앗겨 헐버슨채로 굼주린배를 움켜안고 가두로방황하며 울고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그참상을 백분지일이라도 구제하기위하야 본사대전지국(本社大田支局)에서는 수해구제연주대회(水害救濟演奏大會)를개최하라고 만반준비중 대전경찰서에서 [illegible] 허가하지안는다고하야 부득이 중지하엿다고한다

石谷市場移轉

三大記念會合

谷城支局後援

【谷城】 전남 곡성군석곡시장이전기념과 [illegible] 이신일을 기회로 [illegible] 모든 모임이 열리는데 금번에는 례년보다도 더이그녀일을 성대히 보내고 시장의 번영을 위하야 적극의 상업회를 [illegible]

◇全朝鮮脚戲戰

一、日時 九月五日부터三日間

一、場所 石谷市場

一、主催 石谷商業振興會

一、後援 朝鮮日報社谷城支局

賞品 一等 壯牛一頭 其他 二等 中牛一頭 其他 三等 麻布二疋

◇全朝鮮名唱會

一、日時 八月二十九日부터 九月十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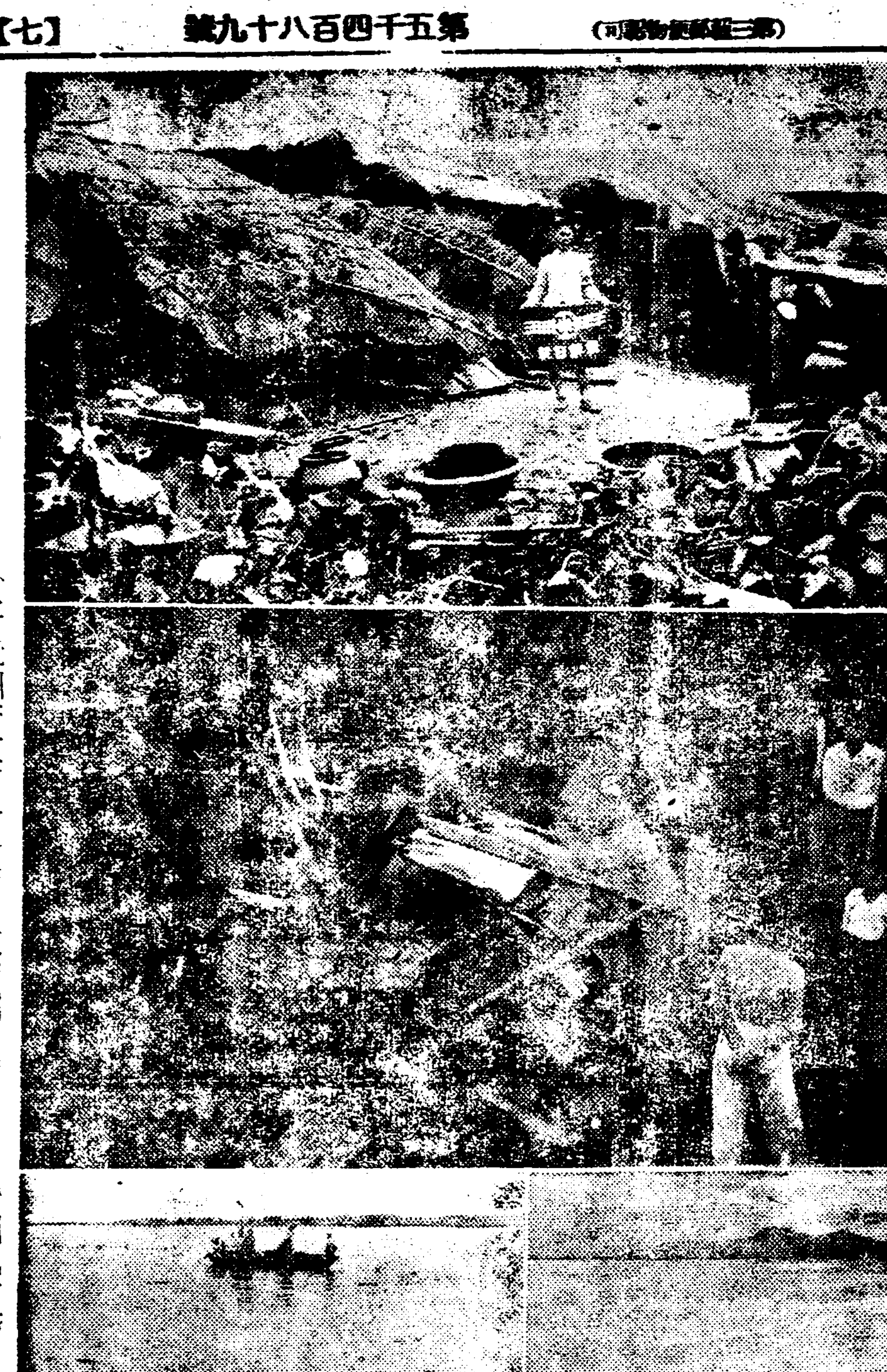
一、場所 谷城、玉果、石谷假設劇場

一、主催 石谷興行團

一、後援 朝鮮日報社谷城支局

地方人事

▲[illegible] 七個面面長一行 [illegible]



◇……水災畫報……(上)光州府東町一帶浸水家屋의慘狀(中)淸州邑市街中心地帶家屋倒潰의慘景 (下右)水國化해버린新泰仁面新堤村 (下左)同新泰仁面九上、新堤、花田等三部落二百餘名罹災民을 救出하는光景

物價高와所得減

勤勞階級打擊相當

最近 物價騰貴의傾向은 顯著한바 잇거니와 이것은 世界的傾向이다 世界政局의不安을 反映하야 軍需品의 主要를 占한 鐵 납 白金等의 世界的 騰貴는 代表的이다 그런故로 朝鮮內의 物價도 가지고 보드래도 相當히 影響하엿는바 그中의 一例를 들면 米價高로 東京部 實物價는 昨年六月과 今年六月을 比較하면 다음과 갓다 (東洋經濟新報社指數 一九一三年을 一〇〇으로한것)

	今年六月	昨年六月
總平均	一八一·五	一六六·五
穀物	一九四·三	一四三·三
其他	一九三·六	一八二·〇

卽 總物價의 總平均은 一年間에 約九%의 騰貴이나 穀物의 騰貴는 三七%에 達한다。

×

小賣物價의 騰貴에 伴하야 小賣物價도 騰貴치안흘수 업는바 日銀調查에 依한 東京小賣物價指數를 보면 다음과 갓다 (大正三年七月＝一〇〇)

	今年六月	昨年六月
總平均	一六三·八	一六〇·五
食料品	一七三·六	一六七·〇

卽 小賣物價의 總平均은 一年間에 約七%騰貴를 보혓스나 食料品의 騰貴率은 二三%에 達한다。

×

이와가티 物價中에도 特히 食料品의 價格騰貴率이 甚大한 따문에 國民生活의 壓迫을 안 바들수 업다 지금 生計費指數의 影響에 잇서 飲食費指數의 影響이 어떠한 程度에 잇는가 함을 보면 (朝日新聞調查 大正三年七月＝一〇〇)

	總指數	飮食費
十年五月	一七九	一六三
十一年一月	一八三	一七一
同 二月	一八四	一七二
同 三月	一八五	一七三
同 四月	一八五	一七三
同 五月	一八五	一七五

住居費、文化費等은 騰貴율이 적은 故로 總指數의 影響은 主로 飲食費의 騰貴로 因한것이다。

×

食料品價格의 騰貴、生計費의 影響에 相關하여서는 어떠한가 하면 이것은 反對로 勞動賃金의 實質賃金 指數의 勞動賃金을 보자 (大正十五年을 一〇〇으로한것)

	名目賃金	實質賃金
十年四月	八一·四	九〇·二
十一年一月	八〇·〇	九一·三
同 二月	八一·一	九二·六
同 三月	八〇·八	九三·五
同 四月	八〇·七	九〇·七

卽 名目賃金은 大體로 保合狀態이나 實質賃金은 急速히 下落하고 잇다 그러나 生活費의 騰貴에 比較하야 賃金의 增加가 遲延하는 現象은 從來에도 보든 바이나 이에 對한 對策으로 國民生活의 安定을 꾀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이다。

×

勤勞階級의 生活은 이처럼 壓迫되는것이 疑心업슬것이 업다 …… 이는 事實이다 그러데 物價와 併行하야 國民所得도 增加되는 反面 所得의 增加도 不可避的이 다 그러데 金利生活者와 大衆의 生活은 어떠한가 金利生活者에게 公債의 利回下落과 …… 金利生活者는 오늘의 社會에 잇서 이와가티 惡化케된다 그러므로 社會問題이 만큼 이것을 解決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朝鮮內漢藥統制機運

漢藥、藥草整理로

官選藥局方創設

三個年繼續事業으로豫算計上

開城엔漢藥研究所新設

近年 漢藥에 對한 價値가 各方面으로부터 再認識되야 朝鮮의 醫藥界에 잇서서 看過하지못하리만한 勢力을 갓고잇서 現在 漢法醫가 朝鮮에 四千七百名 漢藥種商이 一萬二千餘名 漢藥生産이 七、八百萬圓을 算하고잇는바 이와가티 漢藥界가 旺盛한 反面에 不良한藥도 相當히 橫行함으로 이에 對하야 總督府警務局에서는 良質의 漢藥과 藥草의 範圍를 定하야 不良品을 整理할 目的으로 日本藥局方에 準하야 官選藥局方을 만들고저 그 調査研究費(三年繼續)로 二萬一千圓을 計上하고 積極的으로 漢藥의 統制를 行하는 同時에 또同年度에 十三萬圓으로 開城에 漢藥研究所를 新設하기로 되엇다고한다。

"大漢藥會社"

目下桑田其他가計畫中

乾材藥商影響念慮

그와가티 當局에서 漢藥統制를 施行하려고하는 이때에 京城에서 藥種商을經營하는 桑田藥作氏가 中心이 되야 資本金百萬圓(四回拂込)의 大漢藥會社日本皇漢製藥株式會社를 創立키로되야 發起人으로 丸山鶴吉、阪本長三郞、朴熙秉、鄭仁洙、劉永熙氏等이 되야 前記桑田氏가 經營하는 桑田皇漢堂을 母體로 創立準備中이라는데 이會社는 朝鮮漢藥市場의 統制를 主要한目的으로하는만큼 從來의乾材藥商及 群小漢藥商에게 影響이잇스리라하야 그 推移가 자못注目되다고한다

創外될藥과 乾材藥局

今後注目은 當局態度

後援境遇는影響 ▲…趙寅燮氏談

前記 會社創立說에 對하야 京城府內 天一藥房社長 趙寅燮氏는 다음과가티말한다 新漢藥會社가 創立되다는것은 풍聞드럿스나 그의仔細한 內容은 알지못한다 가령 그것이 된다고 하야도 乾材藥局이 하나 더 느는데 不過할것이나 萬若 當局의 應援으로 漢藥市場을 統制하게까지 된다면 一般漢藥商에게도 影響이업지도 안흘것이다

當局에서도 相當理解

統制에相伴되야 ▲…桑田藥作氏談

會社創立의 中心이되는桑田氏는 다음과가티말한다 丸山氏는 創立委員長으로 創立에만 못치고 重役에는 關係안케된다 그런데 設立의主要目的은 當局의 漢藥統制에 伴하야 漢藥의 常設市場을만드러 그取引의 合理化를 圖하려고한다 이에 當局에서도 相當히 理解하고 警務局衛生課長의 紹介로 藥界의 有力人士를 만나서 勸誘를 하는中이다

米自管法發動은 米價如何가左右

最低公定價上位程度

【京城電話商通】米穀自治管理法이 今年 秋收期에 잇서 發動되고안될는 十一月初의 內外地를 通한 需給推算의 結果 過剩米가 생길 與否에따러서 決定되겟는데 有力關係方面의 觀測을 綜合하면 다음과갓다 年度의 理想 持越高는 大體 九百萬石乃至一千萬石으로 그中 民間幾存米도 內外地를通하야 四百萬石、政府所有米五百萬石乃至六百萬石으로 豫想되고 따러서 二十七日의 作況發表에 依하면 內外地를 通하야 一百萬石乃至三百萬石의 過剩米가 생길 計算으로되나 數量的으로는自治管理法發動의 可能性이 생길것이므로 그實現은 價格關係의 條件即 米價가 公定最低價格의 高價一割以上 維持할 與否에따러서 決定케될것이라고 한다

今年燃料不足?

昨年以上의念慮說

昨冬嚴寒期에 燃料飢饉을 現出하야 注目되던 朝鮮內의燃料需給은 今年도 目下의 形勢로는 昨年同樣或은 그以上의 深刻한 燃料不足이 豫想되어 그形勢가 重大視되다는바 即 昨年以來 朝鮮入荷量이 制限되엇던 滿洲炭輸入은 今年도繼續하야 地場과 日本內地出荷로 前年同樣의 狀況이오 日本內地炭은 日本內地의旺盛한 需要로 南朝鮮一帶에의 入荷가 限度로 看做되는 一方朝鮮內 炭中 有煙炭은 石炭液化北陸에의供給等으로 增産이繼續되고 今年度出炭百萬噸豫想이나家庭用燃料로서는 大望치못한다 結局朝鮮에의 供給은 此等各炭을 通하야前年同樣乃至小增에 不過하고自然需[illegible]

殖産契의共販

豫計算을實施

金組下에新設된 殖産契의 事業活動은 農村協同組合運動의 進展上자못注目되는데 右共同販賣事業實施에當하야 財務局에서는 如左히 進步的合理化된 方法을 取키로 되엇다 卽 所謂共同販賣가 現在農會의 行하는 委託販賣와 金組의 行하는 買受人代理와 如한 方法이 잇스나 殖産契에서는 契員의 共同出荷計算을 行하고契員에는 現品出荷後 豫計算으로 餘剩金의 分配를 할豫定이다이것은 日本內地에도그 例가업고 協同運動의精神을 濃厚히 具現한것으로 그 成果가期待되다 한다

朝鮮本籍船舶

朝鮮에 船籍을 둔 汽船의總數는 七月末現在三百四十六隻、그總噸數五萬九千八百二十六噸으로 前年同期보다 隻數五十八隻 總噸數二千六百三十一噸의 各增인데 그內容은 다음과갓다고

	隻數	噸數
二千噸以[illegible]	一八三隻	一七五七五噸
百噸以上千噸未滿	四三	一〇五一〇
千噸以上	二〇	三七四四一

鰮罐詰工場

原料自給에進出

朝鮮內鰮罐詰工場은 無盡藏인鰮原料를擁하면서도 直接漁業을兼營치안흠으로 原料入手는 日本內地工場에比하야 割高를呈하는狀況이다 今回朝鮮內十一個所鰮詰工場에서는 合同하야 罐詰組合을組織하고 右組合에서 巾着網五張의新認可를受하야 原料自給에進出키로되엇다

京城商議補助支出

京城商議에서는 二十七日役員會開催의結果 京城商工聯合會에見本市의補助金二千五百圓 朝鮮貿易協會에 貿易振興展覽會의 補助金一千五百圓을 各各交付키로 決定하얏다고

三井支店異動

三井物産京城支店에서는 支店長更迭에件하는主任級의 異動이 二十九日附로다음과가티 잇섯다고

▲命本店參事附(京城支店長代理) 宮島 正泰
▲命本店機械部勤務(京城機械主任) 長野 正隆
▲命京城勘定掛主任(本店調查課) 大茂 敏雄
▲命京城支店長代理(大連雜貨主任) 池灘峰次郎
▲命京城機械主任(京城機械次席) 高場 未一

重要商品界事情

綿絲布의前途

最近에는 天候가 不良하다고 傳하며 一面米國의 一般財界好轉의支援도 期待된다 그러나 一般이 先約을 警戒한다。

◇

綿絲의 現物에 對하야 보드래도二十手는 前月末頃에 約二千五百俵를 輸送하야 浮動荷量全然一掃한때문에 紡績은 倉庫在荷를 減少하는同時에 今月에 들면서는 生産減과 한가지로 泉川方面에는 荷繰가逼迫狀態이다

◇

그리고 綿布의 採算도 一時보다 相當히 [illegible]

今日財界 (廿九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正米(仁川)一等 … 一斤價 三等 … ◆市中金融 [illegible]
◆株 (單位錢) 朝新 … 東新 … 日産 … 大阪株新 … 大阪人絹 … 大阪紗花 … 大阪砂糖 … 鐘紡 … ゴム … FAQ [illegible]

經濟界消息

◯京城穀物商組合에서는 九月十日開催豫定의 同總會를 京城俱樂部에서 열고 朝鮮白米不賣對策과 改善問題를 協議키로되엇다고。

◯財務協會創立總會＝【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今般本省各部局全國稅務監督局、稅關의 職員을 包括한 財團法人財務協會를 創立키로되야 來月三日 東京에서 創立總會를 열터인데 그目的은 會員相互의 親睦과 福利의增進을 圖하는것으로 每月一回會報財政을 發行하고 講演會를 열리라고

取引停止 (八月廿六日)

京城府北米倉町一四二番地 崔東爾

經洛寸鉄

◯世界一의 漢藥研究所를 開城에 新設키로決定、百萬圓의漢藥會社 創立計畫
◯研究所는 조흔일이나 百萬圓漢藥會社 計畫은 생각할일
◯京城市內만도 大小三百餘 漢藥局이 잇다는데 新會社가 생기면 이들은 어찌될고
◯統制世上이라 왜 미리 어련 생각들이 업섯나

鍾新과日産도

今後妙味百%

[illegible]

株式 高價利喰 下押

商況 (廿九日)

前場下押 休日前은 半日立會는 今前場은 高價買不續하야 利喰押이엇스니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一圓低인 百二十四圓十錢 鐘新九十錢低인 百六十四圓二十錢 日産六十錢低인 七十九圓丁 日魯八十錢低인 六十九圓丁 朝新十錢低인 三十一圓八十錢 日産新 二十六圓四十錢 北紙二十四圓五十錢에 各大引되고 大新六十七圓三十錢 朝取七十四圓丁 拓新 二十二圓五十錢 ▲後場은 土曜로例休이엇다

大勢買時代로

一步식前進?

昨後場 當限 平穩納會好感으로 先約이 漸次있음으므로 原絲도 이近處의 市價는 當然 買氣가 생기고 一面 紡織의 採算도 多少回復하엿스므로 노픈값은 實賣되는 모양이므로 忽論 高價買를 警戒된다。

◇

그러나 原棉의 一高値을 가지고서생각하면 市勢의 動搖는 少幅에 끄치나 나르게에는거 러드리는것이 妙味가 잇지안 흘가 하는觀測이잇다。

市場六感

◯株……鐘新은 拂込說再燃으로百六十五圓臺라는 數年來의 高價를 示現한 鐘新은 機關에 疑問이 생겻지모르나 鐘紡社長津田氏는 繁榮的事業大擴張計畫을 가진만큼 今後의 鐘紡은 東絲의 보기어려울고 鐘新의 擴入增收實現되면 投資投機會兼[illegible]

◯米……當限은 今朝三十一圓五錢까지 下押하엿다가 最終納會價는 一圓六十錢의 大壯觀▲그原因은 受方의 威力이 安大하거나와 空殼賣의 敗退[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櫻田機械 一四四〇 ▲大同産業 一四〇 ▲富士木材 一四〇〇 ▲北華太興業 三四〇〇 ▲片倉製絲 二三三〇 ▲滿洲電業 五七七〇 ▲昭和人絹 三五〇 ▲日滿亞麻 二二〇 ▲라이디業 八五五〇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依然材料待로 市況도 閑散하게 株式과 組付同樣의 保合이오 實物市況은 依然利回에 日銀買입에 依한 高唱示하얏다 甲五分利 一〇一·一五 … 甲四分 [illegible]

大阪國債市況

▲甲五分利一〇一、一五 ▲第三五分一〇一、六八 ▲二四四分一〇一、四五 ▲二四四分一〇一、九八、四五 ▲滿洲公債一〇〇、三〇 [illegible]

期米 當限爆發 納會

前場保合

昨後場寄付三十二圓四十八錢止의 共히 三十二圓三十八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六十八錢인 二丁反落을 接하고 三十二圓二十四錢인 四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二節四十九錢으로 四十四錢으로 最低로 止할 은 후에 小挪하엿다가 二十九錢으로 二十六錢까지 下押하엿다

後場少堅

十錢에 三十二圓三十錢 後場은 三十圓二十七錢 始後場細겟이 따가 三十二圓三十錢에 止場

當限一代記

高發會低納會

今前場으로 最終納會를 告한當限은 三十一圓八十錢에 發會한後 半載寶氣가 旺盛하야 六月十三日에 三十二圓七十錢인 昭和四年以來의 最高價이오 今年度의 天井을 演出하고 때마침 旱地인 中部及西部地方의 降雨로 三十一圓七十錢까지 反落하엿다가 其後 天氣依復과 共히 雨量不足의 買氣가 更히擡頭하야 三十二圓五十五錢까지 奔騰하엿섯다 그리한後 同月二十日의 降雨로 三十一圓八十一錢으로 結局 九十六錢에 納會되엿는데 中限時代에 入하야 三十一圓八十九錢을 最高로 中間四、五十丁의 騰落을 거듭하야 三十錢九十二錢의 最低價를 내고 九十八錢으로서 當限에 入하엿다卽 今月은 在米稀薄으로 渡米蒐集難의 說이 업지안흠뿐 아니라 持米側의 態度가 依然强硬하야 反히 三十一圓七十九錢의 高價를 示하엿다 그러나 高價에는 買物不添으로 更伸치못하고利喰賣의 反落을 告하든바 去二十五日 米穀委員會에서 政府米二百萬石拂下의 決定을 맞아 三十一圓〇五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一圓六十錢에 最後納會를 告하엿는데 當限一代의 步幅은百七十八丁이엇섯다

當限受渡內容

▲渡方 (朝)一、一〇〇石 (和)一六、七〇〇石 (京)五〇〇石 ▲受方 [illegible]
受渡石數 一萬八千二百石
受渡價格 三十一圓三十錢

需給不安解消

政府米拂下로

新米出廻期의 政府米二百萬石의 拂下가決定되어 優先五十萬石은 卽時實施하기로하고 一百五十萬石은 어느時期까지 拂下할것이며 新米二百萬石은 또 한어느時期까지 買上을 할가할 指此가、往昔할바이데 五十萬石의 拂下도 端境期의 需給不安을 解消할수잇다는쪽 百五十萬石의 拂下도 離陸實施할것으로 보지안을수업다 何如間來米穀年度의 持越米는 九百萬石豫想이 되는 民間米가 約六百萬石程度는됨으로需給의 關係은 足히充實할수 잇다 그러나 本年米作은 日本內地의 六千萬石朝鮮의 一千五百五十萬石合計七千五百五十萬石에 持越米九百萬石을 加算하면總合計八千四百萬石밧게 아니될이로 端境期의需給不安은 업다할지라도 來年度 米價에對하야는 需給上 그다지樂觀할수는 一部強氣說도업지아니하다果如何?

各地當限受渡高

	石數	價格
群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大阪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名古屋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中東側 東京側 中東別派
▲買方＝朝鮮側 正米側 地場派

各地正米

京城不變 期米不冴로 依然買氣가乏하고 市況은極히 閑

康益夏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部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期米 玉 柳來恒取引店

石金 土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仁川不變

大邱閑況

群山續落

木浦弱含

株式 (廿九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廿九日)

◆朝取期米◆ ◆仁川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金融 (廿九日)

◆海外經濟◆ ◆外國爲替◆ ◆朝鮮銀行勢◆ ◆金買入價◆ ◆日本銀行勢◆ ◆東京市中金融◆ ◆京城手形交換高◆ ◆京城市中金融◆ ◆大阪金利◆ ◆東京金利◆ [illegible]

商品 (廿九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京城油類◆ ◆日本麥粉市勢◆ ◆滿洲特產◆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人絹現物◆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